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신학협의회

제7회 신학세미나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소강당)

일 시 : 주후 2011년 6월 2일 (금)
오전10시 30분 ~ 오후3시 30분

주 제 :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4:6)**

강 사 : **고훙기** 목사 (신학협의회회장, 옥토교회 담임목사)
강요셉 목사 (신학협의회감사, 총회직영사이버원격신학교학장)

주 최 :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주 관 : 신학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예총연)

150-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 100번지 동양상가 2층
Tel : 02-332-4530 Fax : 02-332-4529
www.yechongyeon.com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신학협의회

제7회 신학세미나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소강당)

일 시 : 주후 2011년 6월 2일 (금)
오전10시 30분 ~ 오후3시 30분

주 제 :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4:6)**

강 사 : **고홍기** 목사 (신학협의회회장, 옥토교회 담임목사)
강요셉 목사 (신학협의회감사, 총회직영사이버원격신학교학장)

주 최 :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주 관 : 신학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예총연)

150-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 100번지 동양상가 2층
Tel : 02-332-4530 Fax : 02-332-4529
www.yechongyeon.com

제 1회 신학세미나 (2005년 11월 25일)



단체사진









제 2회 신학세미나 (2006년 11월 17일)



단체사진



사회
신학협 위원장 서헌철목사



기도
안요한목사



축도
이사장 김경희목사



강사 손상률박사



강의 듣는 모습



강사 김의환박사

제 3회 신학세미나 (2007년 6월 15일)



단체사진



강사 최명덕박사



설 교
대표회장 유영섭목사



사 회
신학협회장 홍연표목사



기도
예총총회장 김진형목사



기도
상임회장 이순주목사



기도
이사 김상붕목사



축 도
이사장 김경희목사



강사 권정희박사



강의 듣는 모습

제 4회 신학세미나 (2008년 10월 31일)



단체사진



강사 김성욱박사



강의듣는 모습



사회
신학협회장 홍연표목사



헌금기도
상임회장 이순주목사



광고
사무총장 반정웅목사



강사 오재석목사



설교
대표회장 유영섭목사



성경봉독
회계 상용희목사



기도
신학협부회장 고홍기목사

제 5회 신학세미나 (2009년 11월 13일)



강사
정성구박사

강사
박종수목사

설교
신학협회장고홍기목사

감사말씀
대표회장유영섭목사



기도
신학협부회장김의웅목사

성경봉독
신학협총무진강웅목사

특송
강진명목사

헌금기도
신학협부회장신숙자목사

폐회기도
신학협부회장이주희목사



단체사진

제 6회 신학세미나 (2010년 11월 5일)



강사
류모세 선교사



1부 세미나 사회
신학협상임총무 박경주목사



기도
신학 부회장 오세택목사



환영사
대표회장 유영섭목사



헌금기도
신학협총무 조정임목사



광고
신학협총무 정승록목사



오찬기도
신하협부회장 신숙자목사



강사
손현보 목사



3부 세마나 사회
신학협감사 유재관목사



기도
신학협부회장 이주희목사



폐회기도
신학협부회장 전승웅목사



단체사진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신학협의회 조직표

예총연


이사장
김경희 목사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

신 학 협 의 회


회 장
고홍기목사


부회장
김의용목사


부회장
오세택목사


부회장
전승용목사


부회장
신숙자목사


부회장
이주희목사


상임총무
박경주목사


총 무
진강용목사


총 무
정승록목사


총 무
최현자목사


총 무
조정임목사


서 기
박종수목사


부서기
신정희목사


회 계
신성수목사


감사
유재관목사


감사
강요셉목사

연 혁

일 시	행 사 내 용	장 소
2005. 10. 05	**제 1기 신학위원회 조직**	예총연사무실
	위원장 : 서헌철목사 총무 : 신춘기목사 서기 : 이준영목사 위 원 : 문기철목사, 최용철목사, 남욱진목사, 이승희목사 오철성목사, 김상문목사	
2005. 11. 25. 11시 ~ 17시	**제 1회 신학세미나**	CTS 기독교 방송국
	강사 : 박혜근박사 주제 : 목회와 현대신학사상	
2006. 11. 03	**제 1기 6회 신학위원회 임원보선**	예총연사무실
	위원장 : 서헌철목사 부위원장 : 최용철목사 총무 : 오철성목사 회 계 : 고성실목사	
2006. 11. 17 10시 ~ 16시	**제 2회 신학세미나**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주제 : 개혁주의 신학으로 본 성경적 국가관 강사 : 김의환박사 주제 : 개혁주의 국가관 강사 : 손상률박사 주제 : 가치관의 혼란과 선지자적 위상	
2007. 03. 23	**제 2기 신학협의회 조직**	예총연사무실
	회장 : 홍연표목사 부회장 : 최용철목사, 고홍기목사 총무 : 오철성목사 서 기 : 양명석목사 회계 : 고성실목사	
2007. 06. 15 10시 ~ 16시	**제 3회 신학세미나**	프레지던트호텔
	주제 : 복음과 문화 강사 : 권정희박사 주제 : 하나님 나라와 문화에 대한 성경적 고찰 강사 : 최명덕교수 주제 : 유대문화를 통한 성경읽기	
2008. 10. 31 10시 ~ 17시	**제 4회 신학세미나**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주제 : 개혁주의 신앙의 미래적 방향 강사 : 김성욱박사 주제 : 벨직신앙고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강사 : 오재석목사 주제 : 종교다원주의와 신앙고백	
2009. 10. 14	**제 3기 신학협의회 조직**	예총연 사무실
	회장 : 고홍기목사 부회장 : 김의웅목사, 오세택목사, 전승웅목사 신숙자목사, 이주희목사 상임총무 : 박경주목사 총 무 : 진강웅목사, 전승록목사, 김경호목사, 최현자목사 서 기 : 박종수목사 부서기 : 신정희목사 회계 : 신성우목사 감 사 : 유재관목사, 강요셉목사	
2009. 11. 13 10시 ~ 15시	**제 5회 신학세미나**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주제 : 교회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강사 : 정성구박사 주제 : 칼빈의 유산, 목회와 실천 강사 : 박종수교수 주제 : 니느웨성 발굴을 통해 본 성서고고학 연구	
2010. 11. 05 10시 30분 ~ 15시 30분	**제 6회 신학세미나**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주제 :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를 위하여 강사 : 류모세선교사 주제 : 우리곁에 성큼 다가온 이슬람,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 강사 : 손현보목사 주제 : 땅끝까지 복음을	

일 시	행 사 내 용	장 소
201. 06. 02 10시 30분 ~ 15시 30분	**제 7기 신학세미나**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주제 :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4:6)	
	강사 : 강요셉목사 주제: 언약신학	
	강사 : 고홍기목사 주제 :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 7 회 신 학 세 미 나 순 서

1부 : 세미나 (10시 30분 ~ 12시 30분)

사회 : 신학협의회 부회장 **전승웅목사**

묵 도 ---------- 다 같 이

찬 송 ---------- 241장(새202장) ---------- 다 같 이

기 도 ---------- 신학협의회 부회장 **신숙자목사**

환 영 사 ---------- 본연합회 대표회장 **유영섭목사**

축 사 ---------- 기독교 교회제모습찾기 협의회 회장 **이순주목사**

강사소개 ---------- 사 회 자

◈제 1 강의

강사 : **강요셉 목사**

주제 : 언약신학

찬송/헌금 ---------- 235장(새200장) ---------- 다 같 이

헌금기도 ---------- 신학협의회 총무 **조정임목사**

광 고 ---------- 신학협의회 상임총무 **박경주목사**

오찬기도 ---------- 신학협의회 부회장 **오세택목사**

2부 : 점심식사 (12시 30분 ~ 13시 30분)

3부 : 세미나 (13시 30분 ~ 15시 30분)

사회 : 신학협의회 부회장 **이주희목사**

찬 송 ---------- 379장(새204장) ---------- 다 같 이

기 도 ---------- 신학협의회 감사 **유재관목사**

강사소개 ---------- 사 회 자

◈제 2 강의

강사 : **고홍기 목사**

주제 :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찬 송 ---------- 400장(새358장) ---------- 다 같 이

광 고 ---------- 본연합회 사무총장 **반정웅목사**

축 도 ---------- 본연합회 이사장 **김경희목사**

찬 송

- 241장(새202장) -

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 한단 말 참 좋도다

후렴) 주 나를 사랑 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 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2.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3.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4.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5.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 235장(새200장) -

1. 달고 오묘한 그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후렴) 아름답고 귀한말씀 생명샘 이로다
아름답고 귀한말씀 생명샘 이로다

2. 귀한 그말씀 내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에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3.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 379장(새204장) -

1. 주의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위에 터닦고 집을지음 같아
비가오고 물나며 바람부딪 쳐도
반석위에 세운집 넘어지지 않네

후렴) 잘짓고 잘짓세 우리집 잘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집 잘짓세

2. 주의말씀 듣고도 행치않는 자는
모래위에 터닦고 집을지음 같아
비가오고 물나며 바람부딪 칠 때
모래위에 세운집 크게무너 지네

3. 세상모든 사람들 집을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위에 짓네
우리구주 오셔서 지은상을 줄 때
세운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 400장(새358장) -

1. 주의 진리위해 십자가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후렴)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2.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위해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3.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세상에 전하세

4.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환영사>



유영섭 목사

◈ 사)예총연 대표회장
◈ 안천교회 담임목사

사랑하는 회원 동역자 여러분!

요즘은 벌써 여름인 듯 한낮의 기온이 제법 따갑습니다. 4월의 새봄에 생명이 약동하는 싱그러움 속에 춘계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예총연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재확인하면서 더욱 성숙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총회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가 맡은 사명감을 새롭게 인식했던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신학협의회가 주관하는 신학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의 한국 기독교 신학은 우리 시대의 현실 속에 타협과 절충과 혼합이라는 이름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흐름은 세속적 기독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풍조는 결국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왜곡시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예총연에서 신학협의회 주관으로 오늘 신학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시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뜻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바벨론 땅의 포로 된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금식하며 회개의 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민족대각성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의 신학세미나가 바로 이 시대에 그러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며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대각성운동의 지평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의 회개 및 개혁 운동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강론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타락하고 죄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반성하거나 혹은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명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자에게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사역의 목표와 저력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시대적 상황과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기는 연구하지도 않고, 준행하지도 않으며 입으로만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자신이 먼저 연구하고 지키면서 남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에스라시대에 온 백성이 말씀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사역과 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백번 지당한 일이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생각할 때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하고자 수고한 신학협의회 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소 우리 예총연을 향한 회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뜨거운 관심과 변함없는 협력에 저와 우리 모든 임원들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역과 총회에 어떤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대표기관이라고 하면서 그저 자기 이름 내기에 급급하고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고 이권만 챙기기에 아귀다툼하는 집단으로 전락하여 이단의 무리들까지 피켓을 들고 '해체하라'고 시위하고 데모하는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 그런 연합체를 보면서 비록 작지만 바로 믿고 바로 사역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우리 스스로가 긍지를 가지고 더욱 더 내실을 다지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예총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신학세미나는 우리 예총연 산하의 모든 총회와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동질성을 가지고, 혼잡한 영적 혼란 속에서 진리의 보물을 캐내며, 간직하고, 전하는 것이 그 어느 시대보다고 우선해야 할 일이며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진리의 파수꾼으로 우뚝 서리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우리 예총연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쉼터이기를 바랍니다. 정겨운 만남과 대화가 있고, 이해와 포용과 용납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비전을 공유하여 식지 않는 열정과 변질되지 않는 순수함으로 신바람 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사랑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화합과 일치와 나눔의 실천을 위해 분발함으로서 여느 연합회보다 으뜸가는 알차고 화기애애한 예총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총연이 향후 지역사회와 한국교계에 공헌하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총연 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서로 뜨겁게 격려하며 열심히 사명에 충성하시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손에 손을 잡고 따뜻한 응원을 보냅시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들의 협력이 없이는 우리 예총연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협력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총연이 오늘 여기에 있음이 바로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예총연의 놀라운 발전과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배나 더 모임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과 협력과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알게 모르게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섬기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환영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이순주 목사

◈ 기독교 교회제모습찾기 협의회 회장
◈ 춘천일심교회 담임목사

주 안에서 동역자 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기독교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카톨릭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즉 종교다원주의라는 거대한 사상적인 움직임이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를 잡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언뜻 듣기에는 사탕발림 같은 말들로 타 종교의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움직임들을 주도하는 세력으로는 카톨릭과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3년에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분명, 마지막 때에 나타나리라고 성경에 예언된 배도하는 음녀의 모습이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합회 신학협의회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그 세력이 막강하여 우리의 모임이 그들이 보기에는 작은 몸짓정도 조차 되지 않아 보일

지라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사60:22)'라는 말씀처럼 결국 그 끝은 진리의 승리로 결말이 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1)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행4:12)
2)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요14:6)
3)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와는 함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요이1:10~11)
4)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갈1:8)

1991년 2월 7일~20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7차 총회에서 닥터 웨슬레이 회장은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다른 종교인들에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설교라는 말은 없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어찌 교회의 목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음녀 바벨론의 사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회의장 밖에서 ICC총재인 맥킨타이 박사는 87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러 하나님을 믿으나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글이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는 과학자 갈릴레오처럼, 거대한 태풍과도 같은 세력인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앞에서 우리가 비록 작은 단체이지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며 참된 구원자이심을 외치는 유일신앙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신학 세미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준비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 약 신 학



강요셉 목사

◈ 합동총회 총무
◈ 총회직영 사이버
원격신학교 학장

들어가는 말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구약과 신약의 명칭이 그러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나라의 특징은 역동성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역동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또한 언약을 반듯이 이루기 위하여 헤세드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베리트'(언약)과 '헤세드'(언약적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 인자)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성경을 읽을 때 언약적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단편적 지식에 그치게 되며 설교 시에도 교훈적인 것만 찾게 된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멀리서보면 두개의 산이 보인다. 하나는 구약의 중심인 시내산(시내산언약)이다. 또 하나는 신약의 중심인 갈보리산(갈보리언약)이다.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인물로 본다면 아담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인 노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모압, 세겜)언약, 성경의 중심인물인 다윗언약이 있다. 예수그리스도는 이 모든 인물을 통하여 주신 마지막 언약이며 언약의 최종완성인 것이다.

언약의 특징

1. 영원성

영원한 언약의 시작은 창3:15절이다. 사탄과 그리스도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언약을 선언하셨다. 이후 노아(창9:12,16),아브라함(창17:7),다윗(삼하23:5)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선언을 하셨다. 시내산(모압)언약(신7:9)도 마찬가지이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이다.

엡3:11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언약의 영원성을 보여준다. 갈3:17절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영원한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1)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움을 입으셨다.(잠8:23)
(2)그리스도는 언약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히10:5-9)
(3)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4)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죽으셨다.

2. 대표성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었다. 노아도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었고 모세는 구약의 대표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믿는 민족의 대표가 되었다. (신7:7) 다윗은 성경전체의 대표인물이다.(마1장의 족보)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는 대표성을 띄게 된 것이다. 롬5장17절에도 아담과 예수그리스도를 대표로 대조하고 있다.

3. 미래성

신29:14-15을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서지 아니한 자에게 까지니'**

모압 땅에서 맺은 세겜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래의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다. 모든 언약의 특징은 미래성이다.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의 미래성을 강조한다.

4. 연속성

신29:14-15절은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언약은 당사자 뿐 아니라 미래에 믿는 자들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갈보리언약도 그 당시 우리가 없었으나 예수는 우리의 죄 즉 미래의 죄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언약의 연속성이다.

5. 통일성

모든 언약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나 다윗언약이 체결됨으로 없어지거나 약화되지 않는다. 바벨론 포로 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자. 시내산 언약을 강조한 엘리 계열의 밀려난 제사장 그룹의 대표격인 예레미야와 사독계열의 정통 제사장 출신 에스겔은 다윗언약을 더 강조했다.

그러나 이 둘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보여준다. 즉 언약파기로 인한 심판과 징계를 예레미야가 강조했다면, 즉 심판이후의 새 언약을 강조했다면 에스겔은 미래의 희망, 즉 다윗언약을 통해 오실 메시야의 새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장. 아담언약

첫 번째 하나님나라의 시작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다. 아담 언약 체결식은 창2:15-17절이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모든 인류가 에덴에서 시험을 받았다. 아담은 자신 뿐 아니라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이들의 대표인 대표성, 언약의 특징인 미래성과 연속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창세기 기사가 1장은 거시적 창조를 2장은 미시적 창조 즉 인간창조를 보여준다. 분명히 문서설을 배격한다. 또한 1장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능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호칭을 엘로힘(복수)으로 사용했다면 2장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호칭인 여호와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언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주로 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2:15절, 다스리는 권세와 지킬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동산의 중앙(창3:3)에 위치한 생명나무를 언약의 징표로 삼고 영생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아담은 언약을 파기하여 내어쫓기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당하고 (창3:24)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창3:19)

예수그리스도의 마지막 승리 이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계22:2,14) 가장 위대한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잠3:18,11:30,9장) 선지자들과 시편2편 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5장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한사람 즉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을 보여준다. 아담의 언약파기로 인한 죄의 전가가 예수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되고 언약이 최종완성된 것을 보여준다. 아담의 대표원리(representation)와 전가원리(imputation)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갈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우리는 정죄 아래 있게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엡2:3)

아담언약은 행위언약이다. 창2장15-17절은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또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다. 일방언약이며 행위언약이다. 아담은 일방언약 아래 놓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다스리고 지킬 권세를 주셨다. 인간의 자유는 언약법 아래에서의 자유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닌 것이다. 아담의 실패이후 행위언약은 은혜언약으로 바뀌어 진다. 죄에 빠진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이다.

정녕 죽으리라는 것은 죄로 인한 육체적 죽음과 영적 사망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아담의 언약파기로 징벌을 받았으나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다.

언약의 증거인 생명나무, 그것은 모두가 볼 수 있게 동산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 계2:7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언약은 창2:9절과 대조된다.

즉 영생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계2, 3장의 7가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첫 약속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인 것이다.

아담언약의 적용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지킬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은사, 직분, 사역, 가정, 교회에 주셨다. 아담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우리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대표성을 잊지 말고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2장. 노아언약

노아언약이 나온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이들이 범죄 하였고, 언약을 계속 파기했다.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은 창6:3절에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징벌을 주셨다. 성령을 거두어 가심과 수명을 정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더욱 관영해 갔다. (창6:5) 이에 하나님은 당시에 은혜 받은 노아를 통하여(창6:8) 은혜언약을 체결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는 120년을 경고하시며 오래 기다리고 참으셨다.
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으나 그럼에도 희망의 상징인 에덴동산과 생명나무까지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창6:12절에서 볼 수 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 이었더라' 이제 미래의 희망은 사라졌다. 이런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언약의 표시인 무지개는 미래의 희망의 상징으로 역시 예수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와 그리스도를 대조함으로 예수그리스도에 의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땅에 내려와 단을 쌓았다.(창8:20) 그것을 보신 여호와께서 흠향하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노아언약은 이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볼 수 있는 장면을 주시해야한다. 노아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은혜언약을 체결하신다.

노아 언약 체결식은 9:1-17절이다. 아담언약에서 피상적으로 드러났던 피언약이 구체화되었으며(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 이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다. 눅22:20절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창세기 8장은 19절에서 끝나고 20절부터는 9장으로 이어져야한다. 그래야 단을 쌓은 노아에게 9:1절부터 언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타락이후 언약파기로 인한 징벌이 가해졌으나 이제 최초로 복이 선포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창1:28절의 선언과 유사하다. 아담은 실패했으나 노아는 이름대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담의 실패와 노아의 승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노아는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며 예수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이유는
첫째 악을 청산하고
둘째 땅과 인류에게 안식을 주었다.
셋째 다시는 저주가 없다.
넷째 그로 인하여 만물이 구원을 얻었다.

언약파기로 인한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전가 그리고 언약을 지킨 노아를 통해서 주신 복을 잊지 말아야겠다.

3장. 아브라함언약

노아의 예언인 창9:26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나온다. 셈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셈은 단순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성, 언약의 대표성을 띄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야벳이 단순히 복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언약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아브라함언약의 배경은 셈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창10장은 언약을 파기하는 함의 후손들이 등장한다. 족보는 늘 그러하듯 줌 앤 크로즈업 기법을 사용한다. 함의 족보의 중심인물은 니므롯이다. (창10:8) 그는 악의 화신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였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창10:10)이었고 그는 고대바벨론 제국의 창시자가 된다.

그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바벨탑건설이었다. 바벨탑건설은 하나님나라의 확장과 정반대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창11:4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라는 말이 반복 강조된다. **대조적으로 7절에서 삼위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쓰셨다.**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것을 넘어 하나님에 대해 반역과 도전, 대적이 시작된 것이다.

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은 창12장1-3절에 구체적으로 시작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셨다.' 아브라함 언약의 법적선포는 '씨'와'땅'의 약속이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숭배자의 집안(수24:2)이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아브라함언약은 은혜언약인 것이다.(사51:1-2)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겜으로 갈 것을 명하셨다. 세겜은 당시 지정학적으로 가나안의 중심이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신비한 장소로서 각종 우상숭배의 총 본산이 되었다. 약속의 땅이면서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중심인 가나안, 그리고 세겜에서 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중심에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은 역동적으로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갔다.

아브라함언약의 중요성은 노아언약과 마찬가지로 가는 곳 마다 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언약의 특징은 그를 죄 가운데(우상숭배자)부르셨다는 것이다. 또한 언약을 세우기까지 즉각적 순종이 아닌 육체의 연약함을 보여준다. 아비가 죽을 때까지의 5년이 지났다. 이런 아브라함을 율법이전에 부르시고 죄 가운데 부르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창15: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본

이 되었다. 또한 율법이전 즉 할례 이전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든 조상이 된 것이다.(이방인)

아브라함 언약 체결식은 창 15:9-21절이다. 창15:2절에 '씨'에 대해 의심하는 그에게 5절의 약속을 보여주셨고 믿은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자(8절) 언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언약체결식의 장면은 기다림과 캄캄함을 통하여 언약의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신다. 또한 아브라함언약의 성취가 430년이 걸릴 것을 말씀하신다.(창15:13)

그러나 아브라함은 얼마 후 언약을 파기한다. 하나님은 16장16절과 17장1절 사이의 13년의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징계하신다. 이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다시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다. 그리고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언약의 골자인 '씨'와 '땅'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상징한다. '씨'는 창 22:17-18절의 메시야 언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복수가 아닌 단수로 강조된다. (갈3:16-17) 이 언약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 땅의 성취는 히 11:9-16절과 같이 아브라함은 단순한 가나안을 사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 그리고 본향을 향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창22장은 아브라함 언약의 결론이며 확증인 것이다.

족장언약

족장언약의 본질은 '씨'와 '땅'의 완성이다. '씨'는 연약하게 이어졌으나 야곱의 12지파의 완전수로 확장된다. 그리고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완전수 7의 10배수를 사용함으로 '씨'의 완성을 보여준다. 족장언약은 하나님나라의 각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은 역동적으로 이삭은 소극적으로 야곱은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요셉은 철저한 훈련과 긍정을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4장. 시내산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백성들을 택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 언약을 체결하신다. 출19:1-6절은 시내산 언약의 법적 선포식이다. 그리고 문서로 언약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스라엘은 신부로 섰다. 언약의 세 가지 골자는 '내 소유'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법적선포식이 끝난 후 언약의 세부법인 십계명과 언약법들이 공포된다. 이것은 언약을 유지하기위한 수단이었다. (출 20-23장) 모세는 중재자로 섰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출24:1-7절은 실제적인 언약체결식이다. 먼저 언약의 당사자가 양쪽에 섰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과 이스라엘백성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로 섰다. 결혼식의 형태를 빌려 성혼이 선포되었다.(출24:3) 그리고 피의 결혼식인 피언약이 시작되었다. 피의 절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려지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졌다.

주의 할 것은 이후 모든 언약 체결식에는 번제와 화목제가 제의적절차로 등장한다는 것이다.(출24:5) 번제는 '올라'로서 전부를 살라 태워 드리는 제사이며 화목제(살라밈)는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백성들이 먹는 일종의 피로연인 셈이다. 언약체결식에서의 제의적 절차를 주목하자.

이제 7절에 언약서가 낭독되고 최종 언약체결식이 체결된다. 이것은 언약의 피 즉 피언약이다. 어기면 피는 생명이니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것이다. (출24:8)

언약파기와 갱신(출32-34장)

출32:6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아론의 주도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파기이며 금송아지인 애굽의 우상과의 언약체결식인 것이다.

A 출32:4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B 출20:1-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A 번제와 화목제(출32:6)
B 언약체결의 제의적 절차(출24:5)

A 먹고 마시며 뛰 놀더라(출32:6)
B 피로연(출24:9-11)

뛰 놀다는 말은 성적인 난잡한 행위를 말한다. 그들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도덕적 타락까지 범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다. 이렇게 진노하신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하나님은 헤렘(진멸)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신다.(출32:10,12)

언약의 파기는 진멸이다. 언약 체결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 언약기도를 드린다. 언약기도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이다. 하나님은 '네 백성'(출32:7절)으로 모세는 '주의 백성'(출32:12)으로 호칭을 달리하며 생명 건 언약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출32:12,14) 그러나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을 처단하기를 원하셔서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선다. 아론은 강제로 이 일을 주관했으나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면한다. 오히려 대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아직 진노는 풀리지 않았다. '너희 만 올라가라'(출33:3) 모세는 다시 언약기도를 드린다.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는 중보자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요17장의 대 제사장으로서의 언약기도를 비교해보라.

언약을 파기한 그들에게 성막과 언약법들이 주어진다. (출35-40장)

5장. 모압언약

모압 언약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맞은 편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고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사이에 체결하게 한 언약을 가르키며 신명기를 가르킨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비교

1.시내산 언약에서는 언약적축복과 저주가 없으나 모압 언약에는 신28장에 나와 있다.
2.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최초의 언약으로서 거시적관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압언약은 가나안 맞은 편 모압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며 체결한 구체적이며 미시적관점에서 기록되었다.
3.시내산언약은 현재적이나 모압언약은 미래언약(세겜언약)이 포함되어 있다.
4.시내산 언약의 청중은 1세대였으나 모압언약은 2세대로서 순종한 세대이다. 하여 청중이 다르니 내용도 다른 것이다.
5.시내산언약의 골자는 '내 소유' '제사장나라' '거룩란 백성'이다 그러나 모압언약은 미시적관점에서 시내산언약을 해석하고 있다. '보배로운 백성' '가장 높은 자' '성민'이다.
6.시내산 언약은 출21-23장, 모압언약은 신12-26장까지 길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시내산언약은 선포형식으로, 모압언약은 설득형식으로 역시 청중의 차이이다.

모압언약은 언약책으로 불리웠으며 이후 모든 선지자들의 멧세지로 선포된다. 특히 신28장의 언약적저주가 언약적축복보다 더 강조된다.

6장. 세겜언약

세겜언약은 모압언약 가운데 미래언약으로 선포된다. 신27장에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세겜으로 가서 언약을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세겜언약은 모압언약의 법적문서인 신26:16-19절 직후 그리고 언약적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선포된 반드시 지켜야 할 미래언약으로서 선포된 것이다. 그러므로 세겜언약은 세 개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처음은 신27장의 미래언약

두 번째는 수8:30-35절의 세겜 1차 언약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 직후 백성들을 세겜으로 이끌어 세겜언약을 체결한다. 특징은 30절에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경고차원에서 이다 그리고 언약체결식의 제의적절차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31) 언약 체결식을 드린다.

세 번째는 수24장의 제 2차 언약체결식이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을 체결한 것같이 죽기 전에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언약 체결식을 한다.

특징은 “씨‘와 ”땅’의 완성을 강조한다. (3) 그리고 ‘씨’와 ‘땅’의 최종완성으로 26절의 상수리 나무는 정관사가 앞에 붙은 아브라함이 체결한 그 장소를 의미한다. 그곳에 돌을 취하고 아브라함언약의 완성을 선포하며 요셉의 해골을 장사하며 족장언약을 완성한다.

7장. 다윗언약

다윗언약을 이해하기 전에 다윗언약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사시대를 거쳐 하나님나라는 하강하고 추락했다. 언약궤는 뺏겼고 참담한 시대가 계속되었다. 이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면서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모셔온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시대를 열면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런 다윗을 통하여 다윗언약을 세우시는 것이다.

삼하7:5 ‘네가 나를 위하여 집(성전)을 짓겠느냐?
7:11 ‘내가 너를 위하여 집(왕조)를 지으리라.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삼하7:11-16절은 다윗언약의 핵심이다. 삼하23:5절에서 다윗이 선언하기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 하시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언약을 언급하신다. 대하7:17,18절에 ‘....네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성경의 중심인물이다. 다윗이 오기 전에는 라합이 나오는 이유, 룻이 나오는 이유를 정확히 몰랐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야 비로소 왜 다윗인가를 알게 된

것이다. 마1장의 족보에서도 다윗은 예수그리스도족보의 중심인물로 부각된다. 그리고 다윗이전의 언약과 메시야언약을 연결시키는 자로 나타난다. 행2: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 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110편을 인용한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야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하게 하셨다. 시110편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110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시편이다. (마22:41-45,막12:35-37,눅20:41-44,행2:34,고전 15:25,히1:13,5:6,7:17,21,10:13) 1절의 '내 주'는 2절의 왕으로 오실 메시야 예수그리스도를 가리킨다. 3,4절은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야,5-7절은 예수그리스도로 시작되는 하나님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리킨다.

다윗은 기름 부은 자(메시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행4:25절에서도 시2편을 인용하면서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언약의 예를 보여주셨다. 삼상20:14-17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하여 '인자'(헤세드)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삼하7장에서 다윗언약이 세워진 후 다윗은 언약을 지키려고 므비보셋을 찾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에도 헤세드가 반복된다. 므비보셋이 오해하고 다윗의 정적들이 비난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복된다.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을 통해 실현해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삼하16장에서 므비보셋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도 다윗은 므비보셋을 추궁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고 있다.

삼하21장은 에필로그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맺은 언약을 사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기브온족을 쳤다. 이 사건으로 언약파기에 대한 언약적 저주가 이스라엘에 3년 기근으로 주어진다. 다윗은 언약파기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언약적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기브온의 요구는 언약 파기자 사울의 자손들을 원했다. 다윗은 언약의 회복을 위해 기브온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사울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어미 리스바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러나 언약회복을 위해 리스바는 원망하지 않고 시신을 보호한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다윗언약이후 선지자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야를 예언하고 있다. 사9:6,7

절은 가장 중요한 메시야 언약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사11:10절은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사11: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줄기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치권의 상징이다.

사55:3'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은 시89:28,29절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야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메시야의 사역을 의미한다.

마1: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창1:1절과 같은 선언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눅1:31-33절도 다윗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야를 증거하고 있다.

8장. 메시야언약

선지자들의 멧세지는 현재에 서서 신명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28장의 언약적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시내산언약(모압언약)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미래적으로는 메시야 언약에 집중된다. 전자는 심판이요 후자는 소망과 회복이다. 어떤 선지자는 전자를 강조한 반면 어떤 선지자는 후자를 강조한다. 그러나 포로 후에는 예외없이 메시야언약을 강조하고 있으며 메시야의 오실 시기가 가까워 올수록 메시야 언약은 구체화되고 있다.

1.예레미야의 새 언약

렘31:31-34절은 위대한 새언약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집과 유다집에 새 언약을 .....' 33:14-16절에 이어진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언약체결식과 모세의 언약책 원본의 발견으로 시작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계승한다. 더구나 요시야가 이미 멸망한 북 이스라엘의 산당들을 훼파한 열심을 이해하며 이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새로운 언약이 시내산언약의 기초위에 세워 질 것을 선언한다.

2.에스겔의 새 언약

34:23-26절에'내가 한 목자를 그들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사독계열의 정통 제사장 이었던 에스겔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야를 강조하며 다윗언약을 통하여 세워지는 새 언약을 강조한다.

9장. 중간사시대의 에센파의 언약신학

중간사시대에는 메시야 득망사상이 더욱 간절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에센파는 쿰란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후 68년 로마에 대항하다가 소멸되었다. 1947년 사해동굴에서 발견된 쿰란 문서에는 신약성경보다 다섯배나 훨씬 더 많은 언약이란 용어가 사용되었고 새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들이 사용한 '수도교범'은 시내산언약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구속력있는 서약을 통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모세의 율법에 응 할 것이라고 맹세해야 한다.....우리가 언약의 구성원이 될 때 ....그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관련해서 그를 살펴야한다.'

에센파의 문헌인 '다마스쿠스문서'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와 언약파기자들을 경계로 해서 세상을 파악한다. '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의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바리새파는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율법과 성전을 지키려는 의지로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고 에센파는 예루살렘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광야로 나가서 메시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엣센파가 강조한 새 언약은 시내산언약을 기초로 한 언약의 갱신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10장. 언약의 완성

1.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히12:24)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위하여 정하셨던 것은 그 아들을 중보자로 지정하신 것이다. 중보자의 직책을 수행하기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세례를 받으셨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 받으셨다.(마28:18)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자신을 기탄없이 하나님께 내어줌으로(고후8:5)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승리하게 하신다.
첫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선지자직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책이다.
둘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속죄와 중재의 직책을 가지신 대제사장으로 지정되신다.

히2: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대속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인 되었으므로 그 백성은 그리스도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셋째, 중보자 그리스도는 시온의 왕으로 오셨다. 다윗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나라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가지신다.

2.갈라디아서 4장 21-31절의 두 언약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두 어머니, 두 산, 두 언약이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갈4:22-24)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의 대표로 비유된다. 곧 시내산언약과 그리스도언약이다. 23절은 '계집 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여기의 시내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시내산언약을 의미한다.
26절'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의 예루살렘도 지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언약의 상징 곧 다윗언약에서의 시온과 같은 의미이다. 어머니라는 표현도 종의 반대말로 사용된다. 곧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칭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언약을 가르킨다.

시내언약은 '육체를 따라났고' 이 말은 다른 이방으로부터 차단하기위하여 율법아래 엄격한 '먹고 마시는 것과 육체적 예법'이 기록되었다. 시내산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권리자였던 것 같이, 종은 자유자가 오기까지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바울은 사54장이 메시야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갈디아서4장에서 보여준다. 사54:1절의 '잉태치 못한 자'는 사라를 가르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갈4: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같이 유대교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31절이 최종결론이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것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인 '자유하는 자'이며 신15:17절의 '귀뚫은 종'에 근거한다.

3.‘베리트’와 ’디아테게‘

구약의 ‘베리트’는 신약에서 같은 뜻인 ‘신테게’로 번역되었으나 ‘디아테게로 번역된 곳이 33군데나 된다.(마26:28,막14:24,눅1:72,22:20...)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경에서도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베리트‘를 ’디아테게‘로 번역하고 있다. 언약관계가 아닌 유언으로서의 언약은 후손들이 반듯이 지켜야 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야곱의 유언, 모세의 유언은 언약이라기보다 유언의 관점에서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유언은 그대로 되었다는 점에서 언약인 것이다. 모세의 모압언약이나 여호수아의 세겜2차 언약도 유언형식으로 되어있다. 신약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해서 ‘디아테게’를 더 강조하고 있다.

4.언약체결식과 성찬

신약시대의 성찬식은 구약의 언약체결식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성찬식은 언약갱신체결식이다. 언약을 갱신하는 체결식인 것이다. 예수께서 이를 지정하시면서 이는 언약의 피 곧 피언약이라 하셨다. 단순한 최후의 만찬이 아닌 것이다.

시내산 언약 체결식부터 보여주는 제의적 절차는 번제와 화목제이다. 이후 언약체결식은 이 두 가지 제의적절차가 동반된다. 이러한 언약 체결식은 결혼식으로 묘사된다. 화목제물은 일종의 피로연인 것이다. 이것은 성찬식과 정신을 같이 하는 피언약인 동시에 언약공동체로서의 교제도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번제는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수직적인 것이라면 화목제는 언약공동체가 먹고 마시는 수평적인 것이다. 성찬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체결식이라는 수직적 의미와 공동체가 교제하는 수평적의미도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할 때에는 언약 갱신 체결식을 강조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언약을 지키며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언약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찬은 점점 의식화되고 형식화 되며 간소화하고 있다.

번제와 화목제의 제의적 절차와 오늘의 성찬이 다른 것은 성찬은 번제, 화목제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예수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그리스도와의 언약체결식인 것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재림도 선포된다는 것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11:2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W.C.C의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를 고발한다!

차 례

서 론 1

1. W.C.C 란 과연 무엇인가? 4

2. W.C.C 의 연혁 4

1) 제1차 총회 5

2) 제2차 총회 6

3) 제3차 총회 7

4) 제4차 총회 7

5) 제5차 총회 8

6) 제6차 총회 10

7) 제7차 총회 10

8) 제8차 총회 12

9) 제9차 총회 12

10) 제10차 총회 12

3. W.C.C 의 신학 13

1) W.C.C 의 종교다원주의 13

2) W.C.C 의 신론과 종교다원주의 14

3) W.C.C 의 기독론과 종교 간의 대화 14

4) W.C.C 의 성령론과 종교 혼합주의 15

5) W.C.C 의 구원론과 사회구원 15

6) W.C.C 의 선교관 개념과 선교사 철수령 16

4. W.C.C 의 성경관 17

1) 위 비판에 대한 W.C.C 의 주장 18

5. 신전의식 속에서 18

6. 참고자료 23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W.C.C의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를 고발한다!



고홍기 목사

- 신학협의회회장
- 예총총회장
- 총회신학교학장
- 욱토교회담임

성 경 :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호4:6)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내외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하며 머리를 들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감리교의 감독회장 자리를 놓고 싸우는 싸움부터,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하기 위한 금전 살포와 양심선언[1], 삼일교회의 담임목사가 7계를 어긴 문제, 소망교회의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눈덩이에 피멍이들 정도로 폭행한 사건[2], 소망교회 또 다른 부목사의 금전 탈취사건[3], 또 분당의 대형교회의 미국 여행길에서 있었던 담임목사와 여 집사의 깊은 스킨십 사건, 또한 비교적 교계에 성공적 목회로 알려 졌던 지구촌교회의 담임목사가 성도들의 73% 이상이나 된 거부권 행사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러나게 된 은퇴사건, 아내를 죽여 생매장하여 숨겨둔 목사의 사건 등, 더 이상 어떻게 다 나열할 수 없는 낯 뜨거운 사건들이 우리 교계에 만연 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1) ① 이광선 목사-돈을 쓰지 않고 선거에 임할 때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떨어졌고, 차기에 돈을 쓰니 대표회장에 당선되었다는 양심선언. ② 합동측의 길자연 목사가 합동교단 내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과정에서 경선당시 길자연 목사의 선거본부장인 홍재철 목사로부터 인당 100만원씩 받았다는 강주성목사의 양심선언, ③ 김화경 목사는 작년 12월 21일 한기총 실행위원에 대표회장 선거투표를 위해 기독교연합회관 3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길자연 목사의 선거본부장 홍재철 목사를 만나, 곧바로 홍목사가 김화경 목사 자신을 4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교통비를 준비했다 잘 부탁한다며, 5만 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50만원 돈 봉투를 건네주어서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했다-교회연합신문 2011.2.20일자신문1면 게재

2) 그것도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담임목사실에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일어났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며, 이러한 일은 교계에 있을 수도 없는 최초의 수치로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3) 겉으로는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렸다지만 이것은 엄연히 목사가 성도의 돈을 탈취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왜? 이런 사건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에 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교계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만 크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계 일각(一角)에서는 성경말씀 없이 설교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4]

예배 시 찬양을 하는데도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C.C.M[5] 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시간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찬양순서에, 찬송가는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C.C.M 만 부르고 있다니?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 지경이 저들도 안됐는지 간혹 가다 찬송가 한 장 순서에 넣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교회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교회는 사탄의 교회가 있고, 동성연애자 교회가 있는데, 저들의 걱정은 동성연애자 교회에 2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가 무언가 잘 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었다는 메시지 전달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본질을 찾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교회본질을 상실케 하는 내면에 "종교다원주의"라는 무서운 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라는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때로는 아주 빠르게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배격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신학교, 선교단체 모두가 이 "종교다원주의"를 몰아내는데 힘써야할 것입니다.

목사님들! 야합하시는데 참 발이 빠르더군요. 일제 강점기 말년에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주의 종들이 옥고를 치르던 그 때, 평양 기독교 친목회라는 것을 만들어 일본 경찰에 앞장을 서서 주기철 목사님을 괴롭히던 분들, 그들은 줄서기를 참으로 발 빠르게,

4) 한국기독교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예장 통합측 목사들은 지난 2월 22일 선교대회를 열고 "지금 한국교회는 그 본질을 상당히 잃어가고 있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교인 수와 재정의 능력으로 목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성장지상주의와 물질주의, 대형교회들에서 연일 터지는 각종 비리, 성경에서 멀어져가는 설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지난날의 자랑스러운 전통에 오점을 찍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서여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출처, 교회연합신문-2011년 2월 27일자-사설 "예장통합측 목사들의 선언에서"

5)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현대 크리스천 음악)

약삭스럽게 일제와 야합하는데 앞장 스셨습니다.

또 통합측은 지난 2월 18일 롯데호텔에서 총회임원회와 증경총회장들이 모여 한기총 사태를 논의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총회장 김정서 목사는 “이번 한기총 사태는 우리 교단과 상관없는 이광선 목사의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미 다수가 길자연 목사측에 합류하여, 사실상 이광선 목사는 한기총에 대한 동력을 잃은 상황이므로 우리 교단도 대세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6]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약삭빠른? 처세술을 쓰려고 합니까? “줄서기가 치졸하지 않냐”는 교회연합의 젊은 기자의 말[7]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합에 발 빠르지 말고, 교회제모습찾기를 바르게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13년에 부산에서 WCC총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WCC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는 反 기독, 反 성경, 反 교회적입니다. 이제 그 실체를 서서히 베끼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마는 실상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WCC에 한국이 KNCC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KNCC에는 한국의 총8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데, ① 기독교장로회(기장) ② 예수교장로회(통합) ③ 기독교감리회 ④성공회 ⑤ 구세군 ⑥ 기독교대한복음교회 ⑦ 정교회 ⑧ 순복음교회(기하성)입니다.

이번 KNCC 회장으로 순복음 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영훈 목사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회장에 취임하면서 “WCC 는 지극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WCC에 대한 반대 의견은 신학적 오해에서 근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률 목사[8]는 말하기를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많은 신학과 신앙의 보수를 견지해온 신학자들이 역사를 두고 검증하고 또 검증했는데, 그분들이 신학적 오해를 했단 말인가? 물론 그들 가운데(WCC 관계자들)는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목회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성경이 과연 종교다원주의를 허용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말한바 있다.[9]

그러면 WCC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교계의 어른들 앞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들먹이면서 교회본질 회복의 시급성을 외칩니까? 그것은 WCC의 실체를 벗겨보면 압니다.

---

6) 출처-지난2월27일자 교회연합신문 12면에서

7) 출처-2월27일자 3면, 칼럼, “줄서기 눈치 싸움”-차진태 기자

8) 사)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이사장, 국제크리스천학술원 원장

9) 출처-복음신문 2월20일자 8면 칼럼, 질그릇과 보배 “한국기독교계 왜 이러나?”(박영률 목사)

1. WCC란 과연 무엇인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조직된 **W.C.C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는 세계 110개국의 349개 개신교회 교단과 정교회와 성공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5억 6천만의 교인대표)[10],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기독교 대표기구이다.

이 협의회는 세계 동방정통교회의 대다수와 영국 성공회, 침례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및 다수 개혁교회들, 연합교회(United Churches)와 독립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한국교회가 유치한 제10차 W.C.C 총회는 7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에 참가하는 세계교회는 여기에서 에큐메니칼 예배, 정책수립, 사업평가, 중앙위원회 조직, 공동회장단 선출 등을 결의한다.

W.C.C 는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사상과 신(新)정통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에큐메니칼 운동과 사회변혁을 통한 사회구원을 강조한다.

2. W.C.C 의 연혁

W.C.C 가 발족되기 전, 소련의 스탈린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평화연맹'을 조직한다.(1947. 9). 이 단체는 주로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과 그 위성국의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세계교회 침투를 위한 세계적화 사령부였다.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교묘히 침투해 들어간 스탈린은 러시아 정교회 신학생이었다.

그는 러시아 정교회의 타락상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사단적인 감화 아래 레닌과 힘을 합쳐 노동자 운동을 선동하므로 공산주의 피의 혁명을 이루어 낸 자이다.

이 혁명 기간 러시아는 자기민족 약 5000만 명을 희생 시켰다(1917-1947).

이러한 살인집단이 색깔을 바꾸어서는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 때(1958. 3. 18). 갑자기 <평화공존, 핵무기제한, 핵실험 금지> 등의 소위 위장평화 전술을 들고 나왔다.

이처럼 공산당이 반대자를 때려죽이는 타도정치를 끝내고, 궤휼정치로 색깔을 바꾸어 나오면서 적극 이용한 것이 바로 W.C.C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련 공산당서기장 흐루시초프는, 제3차 W.C.C 총회에 대비하여 1958년 11월 체코 프라하에서 **"세계기독교평화회의"**를 조직하였고, 이 회의에 서방교회에서만 600 여명이 참가하여, 흐루시초프의 "동서공존" 이란 위장평화 전략이 먹혀든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

10) 지난 2011. 3. 9-14일 까지 방한하여 회원교단의 협조를 요청한 WCC 「울라프 픽쉐 트베이트」 총무는 9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세계 250개 교단의 협의체인 WCC 총회"라고 말한바 있다.(출처, 기독교타임즈. 2011. 3. 19일자 5면 기사)

기독교감리교단의 김홍도 목사의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글에 '흐루시초프는 서기장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고 언급하였다. 즉

"소련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없이하고 마지막 한 사람을 전국 모든 사람이 TV로 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죽여 버려 소련 땅에서 교인 씨를 완전히 말려 버리겠다." 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시행되기 전에 그를 먼저 데려가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 제1차 총회

1948년 8월 13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에서 44개국 147교회 351명이 모여 제1차 총회를 가졌다.

W.C.C 1차 총회는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칼바르트가 주제 강연을 나왔다.

로마 카톨릭과 러시아 정교회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파가 참석한 총회였으나 외형적인 연합을 강조하여 막대한 영적 희생을 가져 왔다.

당시 세계는 제1, 2차 세계대전의 쓰라린 전쟁의 고통이 분열된 교회 때문이라는 책임을 통감하고, 세계교회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하나 됨' 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이 총회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은 아니며, 구원의 보편화를 인정하고, 회개는 일종의 인식이며, 구원은 지상에서의 '평화'를 가리키는 것임과 개인의 도덕적 영적 생활과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제2차 총회

1954년 8월 미국 '에반스톤' 에서 열렸으며 "현대의 정치적 정의는 공존" 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대회이다.

제2차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희망」 이라는 주제였다. 그렇지만 복음주의적 주제가 아닌 저개발국가의 혁명을 옹호하여 대량 파괴무기의 반대 등을 다루었다.

이 총회에서는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W.C.C 의 지상목표" 라는 신앙고백을 선언함으로써 스탈린의 평화공존 결의안을 지지하였고, 우리나라의 K.N.C.C 가 이 때 가입신청을 내었다. 한국교회의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기 시작한 분기점이 된 것이다.

6·25라는 민족적 참화를 겪는 전쟁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사상전쟁(思想戰爭, 색깔론)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보수교단 대표들은 반대연설을 하고 퇴장하였으나, 기장, 기감, 예장(통합), 측은 K.N.C.C(National Council Church, Korea)의 이름으로 W.C.C에 가입함으로서 사단의 마수는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붉은 짐승과도 같은 WCC는 이처럼 양의 탈을 쓰고서, 그 산하 단체인 '아시아교회협의회'(C.C.A), '기독교교회협의회'(N.C.C), '산업선교회'(U.I.M), '기독교학생총연합회'(S.C.F)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3) 제3차 총회

1961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3차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타 종교들도 세계에 빛을 발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신속한 사회변화와 저개발국가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 결국 발족 된지 13년 만에 마귀는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공산권 교회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W.C.C회원이 되어 총회의 용공성이 강화 되었다.

당시 소련 K.G.B(국가보안위원회) 요원이요 당시 '세계기독교평화회의'의 의장인 '니코딤'이 소련교회 대표 자격으로 16명을 인솔 참가하여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와 더불어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이때 니코딤은 W.C.C 중앙위원에 임명됨과 동시에 W.C.C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러한 배후에는 흐루시초프의 세계적화 야욕이 숨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니코딤은 이 대회에서 예수만이 세계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은 전혀 말 못하고, 흐루시초프의 공산당노선을 선전했으며,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필수이념임을 운운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식회원국이 된 것도 이 3차대회 때다.[11]

4) 제4차 총회

1968년 7월 스웨덴 '웁살라'에서 개최 되었으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계시록의 말씀인 주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종차별, 평화,

11) 사실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다.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공부하지 않고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실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성도들은 이러한 배경과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에 관여하고 있는 성도나 목회자라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민족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다.

사회정의, 3세계 발전이란 내용만 다루어 졌다.

4차 총회는 그리스도 외에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인정한 적 그리스도적이요, 반 성경적인 총회였다.

제4차 웁살라 총회에서는 타 종교와 자유한 태도로 함께 궁극적 진리를 파악하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혼합주의를 주장했으며, 사회, 경제의 정의와 해방을 강조하며, 인종차별 투쟁 사업으로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합법화하여 물질적 지원은 물론 무기까지 지원하는 등 복음적 선교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4차 총회 때부터 다른 종교에 대하여는 "다른 신앙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필립 포터 총무는 1969년 5월 25일자「로스앤젤레스 타임」지에 "W.C.C는 만일 폭력이 정치적 경제적 독재를 전복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면 그 폭력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기고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마26:52)과는 정 반대 되는 사상을 선포했다.

또 「기독교 사상」1972년 11월호에서는 "폭력 혁명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기독교의 봉사를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공산혁명 과업을 교회가 본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에큐메니칼 리뷰」지에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 원조를 끊어야 한다."고 발표 하였다. W.C.C 총무의 발언들은 하나같이 사회주의, 맑스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북한의 주장도 이것과 동일한 주장이다)

W.C.C 총무가 말하는 해방이란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자본주의와 계급 사회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다.

4차 총회에서는 ① 남한으로부터 미군 철수, ② 미-일의 남한 군사 원조 반대, ③ 남한 기독교인 중심의 민중 옹호 투쟁지지 및 투옥자 석방 등의 내용이 결의되었다.

5) 제5차 총회

1975년 11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해방의 신학 :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개최 되었다. 이 총회에서는 이방 종교들과 마르크스의 사상까지도 진리의 범주에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대회의 대변자인 로버트 브라운은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교(모슬람), 힌두교, 불교, 맑스주의 자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때가 왔다”는 미친 발언을 하였다.

소련의 비밀경찰 두목이요 평화연맹 의장인 ‘니코딤’이 의장에 당선 되었고, 맑스주의 자인 ‘필립 포터’ 목사가 총무에 당선 되었다.

총회 신앙고백서는 ①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을 공식 승인하고, ② “자본주의와 인종차별주의 및 식민주의의 불의한 모든 구조를 파고하지 않는 한 어느 국가나 민족도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사회주의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첩경” 이라고 선언했다.

1977년 W.C.C 필립 포터 박사는 중앙위 기조연설에서 “공산주의가 베트남에서 승리한 것은 베트남 인민의 위대한 해방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 위대한 베트남의 승리는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인민을 고무시키고 있다” 라고 발언하였다(W.C.C 회보 E.P.S '77. 6. 9. 기사).

이렇게 노골적으로 완전한 사단적 발언들을 내 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거대 교단들이 지금까지도 이러한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살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5차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하고 연합하게 한다” 는 주제로 열렸는데 로마 교황청과 불교, 힌두교, 모슬렘교, 유대교 등이 참석한 총회였다.

강력한 변화와 혁명에 초점을 두었으며, 해방신학이 승리하는 총회였다. 서구에 대한 공격, 특히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의 인권유린에 대하여는 침묵했다.

예배 같은 것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전혀 없이 모든 종교에 대해 인정했다. 또한 로마 카톨릭과 아주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다.

결국 제5차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구원의 복음과 선교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해방' 이라는 말로 재 정의하였고 예수그리스도를 해방자로 묘사하여 해방신학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총회에는 드디어 로마카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이 참석하여 혼합주의의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6) 제6차 총회

1983년 7월 2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100개국 300개 교파에서 3,000 여명이 모여 "정의, 인간존엄에 대한 투쟁, 환경오염, 하나 됨을 향한 진일보, 공동체를 통한 삶의 치유와 공유" 등을 논의 했는데, 한국에서도 40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2명이나 W.C.C 중앙위원이 되었다.

W.C.C 는 창설 당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병폐를 다 같이 지적하는 듯 하였으나 (대화와 평화공존 강조), 1961년 3차 총회에서 소련 K.G.B 요원이 회장에 피선 된 것을 계기로 그 본질이 공산주의 선전 도구 및 침투기구라는 것이 밝혀졌고, 1966년 '제네바'에서 '해방신학' 원칙을 채택하여 "혁명을 위한 폭력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공개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제6차 '밴쿠버' 총회는 소련 및 동구 공산권대표들 까지 참석하여 맑스주의적 사회주의 비전을 높이고 타종교와의 대화를 모색하고, 타종교도 역시 하나님께로 가는 또 다른 길임을 인정한 총회였다.

6차 총회는 1983년에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이라는 주제 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로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이 아닌 범세계적 사회주의 질서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로 변질되어 버렸다.

친 공산주의적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총회였다. 이는 집회 장소에 캐나다계 원주민들의 우상을 내걸은 것에서 잘 알 수 있다.[12)]

7) 제7차 총회

1991년 2월 호주 '캔버라'에서, "오소서 성령이여 -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전 지구를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성령 현존의 중요성, 또는 "영성(Spirituality)" 의 중요성을 언급 하였다.

12) 원주민들의 종교는 주로 정령숭배교이다. 2010년 초, 지진으로 초토화가 된 '아이티'도 '부두교'라는 민속신앙을 섬긴 나라이다. 부두교는 프랑스 식민 시대부터 내려온 로마카톨릭의 제의적요소이다. 요루바·폰·콩고 출신의 노예들과 아프리카의 다른 민족들이 아이티에 가지고 들어온 아프리카의 신학적 요소와 주술적 요소가 혼합된 것이다. 부두교 신자들은 초월적인 하느님에(하나님이 아님)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신인 아프리카신 '로아'라고 불리는 수많은 정령을 믿고 있다. 부두교에서 큰 화젯거리가 되는 독특한 존재는 좀비(Zombi)이다. 부두교 신자들은 좀비를 주술적 목적에 이용 되는 죽은 사람의 떠도는 영혼으로 간주하거나 주술적 방법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여 일종의 의지력 없는 기계처럼 들판에서 농사일을 하는데 이용되는 시체라고 생각한다.

이때 중공교회 이외의 6개 교단이 새로 가입하였는데, 정회원에 가입된 교단은 ① 필리핀 성공회, ② 침례자유 오순절교회, ③ 남아공 화란개혁교회이고, 준회원에 가입된 교단은 ① 볼리비아 루터교회, ② 엘살바도르 침례교회, ③ 산살바도르 루터교 노회 이다.

북한도 '북한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 4명이 세계교회협 사상 처음으로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때 한국의 정현경 교수가 '초혼제'를 행하였는데, 이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소지를 불태운 뒤 그 재를 하늘로 뿌리는 행위였다.

그는 원혼의 음성을 못 들으면, 성령의 음성도 못 듣는 다는 말도 안 되는 마귀 소리를 행했으며, 한 맺힌 영들은 정의를 세운다고 떠돌아다닌다 하였다.

정현경은 상복을 연상케 하는 흰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와 창호지에 쓴 영문 초혼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한 맺힌 영들과 피조물들의 영들의 내림을 기원을 제사 드렸다고 한다. '한 맺힌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로 시작되는 정현경의 초혼문 원고 일부는 다음과 같다.

"오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버림 받은 검둥이 여종, 이집트 여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그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다윗 왕의 욕정 때문에 다윗에 의하여 전쟁터로 보내져 죽임을 당한 충성스런 군인,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전쟁에서 승리 한다면, 자신을 마중 나온 첫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아버지 입다의 믿음의 희생물이 된 그의 딸의 영이여."

계속해서 정현경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헤롯의 군사들에 의해 살해당한 남자 아이들의 영, 잔 다르크의 영, 미녀사냥으로 말미암아 불타 죽은 중세기 여인들의 영, 십자군 전쟁 때 희생된 사람들의 영, 기독교가 식민주의 시대와 이교도 세계에 대한 우월의식을 지니고서 선교하던 시대에 학살된 토착민들의 영을 차례로 불러들였다.

이에 대해서 서울교회의 담임을 하고 있는 이종윤 목사는 말하기를 "초혼제는 무당 신앙 접맥에 불과 하다"고 하였고, 한국복음주의협동총무인 김명혁 목사는 "종교혼합주의 노선 심각 경계"를 외친바 있다.

7차 총회는 "성령이여 오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라는 주제였는데, 이화여대 정현경 교수가 '초혼제'와 풍물을 발표하며 착취당했다는 하갈과 광주 '천안문'에서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는 초혼제를 하여, 이를 성령의 강림으로 표현 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와 토착종교와의 융합을 시도했으며, 해방신학, 혁명신학만이 인정받는 총회였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제7차 캔버라 총회(1991년)에서는 카톨릭,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외에도 점술가, 심령술사, 마술사, 무당 등을 포함한 세계의 15개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하는 대규모 종교혼합집회를 갖고, 세계종교의 통합과 단일성을 외쳤다.

이와 같이 종교 통합 운동을 추구하고 있는 W.C.C 를 과연 기독교 단체로 인정할 수 있을까?

8) 제8차 총회

1998년 12월 3~14일까지 아프리카 짐바브 '하라레'(Harare)에서 "희년 총회"로, 주제는 "하나님께 돌이켜라 - 희망 중에 기뻐하라"로서 인류는 그의 문제를 씨름하는 중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궁극적 방법임을 깨달아 한다고 언급했다. 남북한 교회 대표들이 공동예배를 드리고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으니, 이는 영적으로 깊이 취한 남한 진보교회의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8차 총회는 "하나님께 돌이켜라 - 희망 중에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는 W.C.C 가 창립 된지 50년이 되는 희년총회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강조로 타 종교와의 일치와 대화, 협조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9) 제9차 총회

2006년 2월 14일~23일까지 21세기의 첫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인 제9차 W.C.C 총회가 브라질의 남부 도시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 폰티피컬 가톨릭 대학교(Pontificul Catholic University)에서 열렸다. 제9차 총회에는 348개 회원교단에서 691명의 총대를 포함한 약 4천명 이상이 참석했다. 제9차 총회 주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혁 하소서"(God, in your grace transform the World) 였다.

10) 제10차 총회

제10차 W.C.C 총회가 2013년 한국 '부산' 벡스코(BEXCO) 에서 개최된다.

3. W.C.C 의 신학

W.C.C 의 신론과 기독론은 '종교다원주의' 이고, W.C.C 의 성령론은 '종교혼합주의' 이고, W.C.C 는 영혼구원이 없는 사회구원만 말하고, W.C.C 는 선교사 철수령을 결정했고, W.C.C 의 성경관은 '역사비평학' 을 수용하는 '인본주의' 이다.[13)]

13) 지난 2010년 4월 28일, 서울신대에서 "N.C.C 가입(W.C.C 신학) 과 성결교회 입장" 이란 주제로 제61회 정기 세미나 개최 때, 옥일환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해외선교국장) 의 발제문에서 발췌. -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W.C.C 부산총회개최반대위원회" 의 주석을 참조.

1) W.C.C 의 종교다원주의

(1)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란?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가 아니라 타종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사상이다. 즉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 샤머니즘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빛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견해이다.

'종교다원주의'가 태동하게 된 상황적 정황은 세계의 산적한 문제[14] 들을 국가 간의 협조로 해결해야 하는데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 화해의 무드가 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 세계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결론이다.

신학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W.C.C 제4차 총회 '웁살라'(1968년) 에서 수용하고 이후 '벤쿠버' 총회(1983년)에서 적용하게 되었다.

2) W.C.C의 신론과 종교다원주의

(1) 신 중심적 종교다원주의

신 중심적 종교다원주의란? 이는 각 종교에서 부르는 신(神)은 명칭만 틀리지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알라'나 '부처'나 명칭만 틀린 것이지 사실상 같은 '하나님'이라는 주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라는 주장은 타 종교와의 간격을 줄일 수 없고 오히려 종교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생각한 종교다원주의 자들은 '신 중심적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신 중심적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에 일차적인 초점을 둔다.

그 하나님은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실제"(Ultimate Reality) 로 표현한다. 궁극적 실제로 접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배타적 태도를 벗어나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같은 '신 중심적'인 다른 종교와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종국적이라는 걸림돌을 피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사상을 존 힉, 파니카, 사마르타, 니터 등이 공동으로 갖고 있으며, 이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존 힉'(John Hick)이다.

3) W.C.C 의 기독론과 종교 간의 대화

(1) 종교 간의 대화란 무엇인가?

많은 기독교인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도 종교 간의 대화를 전도하기 위해 타 종교와 대화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W.C.C 에서 말하는 종교 간의 대화는 '종

14) 핵의 위험, 전쟁, 경제문제, 인종차별, 인권, 환경문제 등등.

교다원주의'를 근거로 하여 복음전파 등의 선교를 하지 말고 세계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전도는 개종이 아니라 각기 자기 종교를 잘 믿게 하는 것으로 대치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선교 무용론을 주장한 인본주의 신학의 결과이다.

종교간 대화를 주장하게 된 신학적 근거로서는 기독론의 재해석에 따른 '종교다원주의사상'을 들 수 있다. 즉 W.C.C '뉴델리' 총회(1961년)에서 '요셉 시들러'(Joseph Sittler)가 제시한 "우주적 그리스도"(Cosmic Christ)[15] 개념과 '웁살라' 총회(1968년)에서 '홀렌베거'(W. Hollenweger) 가 제시한 "교

회의 담장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16] 라는 논문을 통해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게 된다.

4) W.C.C 의 성령론과 종교 혼합주의

(1) W.C.C 의 성령론 이해는 종교혼합주의이다.

종교다원주의를 근거로 종교간 대화를 주장하는 W.C.C는 더 나아가 보편적인 성령을 강조한다. 즉 성령의 역사는 온 우주에 미친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왜 기독교에만 역사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은 성령의 빛을 모든 종교에게 비춘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각 종교에 나타난 영적 능력과 신비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W.C.C는 "영성"(Spirituality)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슬람의 '수니파'의 신비적 체험이나, 무당들의 영적 현상을 성령의 역사와 동일시한다. 이러한 사상은 범신론에 기초한 혼합주의 사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성경은 "다른 복음" 또는 이단이라고 한다(갈1:7-9).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같은 용어로 혼동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W.C.C의 성령 이해는 범신론에 기초한 '종교 혼합주의'이다.

5) W.C.C 의 구원론과 사회구원

(1) W.C.C 의 구원론이란?

15) 우주적 그리스도란 모든 문화와 종교에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유대교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석가에게는 석가 그리스도로, 마호메트에게는 마호메트 그리스도로, 공자에게는 공자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16) "교회의 담장 밖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의 담을 넘어 모든 종교에 현현(顯現)한다는 '종교다원주의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 '라너'(Karl Rahner)가 제시한 "익명의 그리스도인"(Anonymous Christian) 개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독론의 재해석은 타종교에도 그리스도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W.C.C 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전통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과 차이가 있다. 즉 전통적인 구원론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죄 사함 받고 영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W.C.C 가 말하는 구원론은 세속화 신학과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 착취로부터 해방, 그리고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해방을 말한다. 즉 구원은 영적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 해결을 말한다.

그러기에 선교의 목적을 "인간화"라고 한다. W.C.C 의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 없다. 인간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구조적인 악과 싸워 사회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면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다.

W.C.C. 는 구원을 왜곡(歪曲) 하였다.

6) W.C.C 의 선교관 개념과 선교사 철수령

(1) W.C.C 의 선교 개념은 어떠한가?

복음주의 선교개념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게 하는 곳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사회 복음을 동시에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음이 영적 구원을 대신 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W.C.C 의 선교 개념은 복음 전파가 아닌 사회 참여를 말한다. 세속화 신학에서는 사회 참여와 정의 실현, 해방 신학에서는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해방,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인종 차별로부터 해방 등을 구원이라고 설명한다.

선교는 곧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다. 또한 인류 평화를 위해 기독교의 정체성은 내려놓고 타종교와의 대화를 강조한다. 즉 대화를 통해 이룩한 세계 평화가 곧 선교라 한다.

이와 같이 W.C.C 의 선교는 복음이 아닌 세상문제 해결을 말한다. 그래서 1973년 '방콕' 대회에서는 "오늘의 구원"을 다루면서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복음이 빠진 W.C.C 의 선교 용어를 복음주의 선교 용어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

(2) W.C.C 의 선교 개념으로 인한 선교사 철수령

공식적인 선교사 철수령(Moratorium)은 20세기에 두 번이나 일어났다.

첫째 선교사 철수령은 하버드 대학의 '호킹'(W. E. Hocking) 교수에 의해서이다. 록펠러 재단은 1932년 그에게 과거 100년간의 선교를 평가하라고 하였다. 이에 '호킹'은 "선교의 재고"(Re-Thingking of the Missions. A Layman's Inquiry after One Hundred Years) 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와 아울러 상대주의 입장을 근거로 종교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타 종교에도 진리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호킹'의 보고서는 사방으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았으나 그의 보고서를 받은 록펠러 재단은 선교사들을 부정적으로 평가 하였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선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선교사 철수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은 선교비 지원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둘째 선교사 철수령은 W.C.C '방콕' 대회의 영향 때문이었다. W.C.C는 1971년 중남미의 '바르바도스'(Barbados) 섬에서 '인종차별 투쟁 사업' 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 선교사들은 종교적 가면을 쓰고, 인디언 문화를 배척하고, 인디언을 선교의 대상으로 굴복시키고 또 다른 식민주의를 자행했다고 비판 하였다. 이 영향으로 1973년 W.C.C '방콕' 대회에서는 해방신학과 연결하여 '오늘의 구원'을 '해방' '인간화' 그리고 '자기 정체성'으로 표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자로 해석 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해석은 과거 서구 선교가 제국주의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피선교지를 억압했다고 평가하면서 선교 모라토리움(Moratorium, 철수령)을 선포 하였다.

이 사건을 통하여 W.C.C는 그들의 기금을 해방 운동의 보조비나 제3세계 유학생 교육비로 전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W.C.C는 용공시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4. W.C.C의 성경관

W.C.C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은 역사책에 불과하고 인간이 저술한 하나의 책으로 간주한다.

W.C.C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본주의 입장인 것 같으나 세상에 관심을 가지라는 세속화 신학의 모토일 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 역사관을 지니고 있다.

'웁살라' 대회는 이러한 입장의 역사관을 수용하였다. 그래서 '웁사라' 대회는 "세상이 선교 사업 목록을 제시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세상의 문제들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사실 W.C.C의 역사관은 낙관적인 미래를 주장하는 진화론적 입장과 인간의 이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역사관이므로, 선교 사업이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서 시작하는 인본주의 경향을 띤다.

그러므로 W.C.C는 인본주의 관점으로 인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 성경도 하나의 역사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비평학 방법론'(The Historical - Critical Method)을 사용하여 성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한다. 이 해

석학으로 인해 성경의 초자연적 사건은 거부하고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인정한다.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이 신학에 적용되면서 성경의 권위는 무너졌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성경도 인간이 저술한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다른 역사책과 똑 같이 역사적 비평을 통해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위 비판에 대한 W.C.C 의 주장

W.C.C 는 349개 교단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으로 통일된 신학을 가질 수가 없다. W.C.C 안에는 다양한 회원 교단들의 신학이 있다. 동방정교회의 신학이 있고, 종교개혁전통의 성공회, 개혁교회, 루터교 신학이 있고, 감리교회 신학과, 오순절 교단의 신학과 그 외에 다양한 전통들이 혼재한다.

따라서 W.C.C 는 회원 교회들 사이에서 여러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 신학적 협의회를 열거나, 소위원회들을 구성하여 연구 모임을 갖지만 W.C.C 신학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W.C.C 가 꼭 필요한 경우에 중앙위원회나 총회의 결의를 거쳐 발표하는 문서는 W.C.C 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W.C.C 가 초대한 개인 신학자들의 발표나 신학협의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W.C.C 의 신학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W.C.C 는 신학적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신전의식 속에서(CORAM DEO)

이 땅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떠한 정치체제라 해도 완전할 수는 없다. 완벽한 정치, 공의(公義) 의 정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17]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체제 하에서 하나님을 더욱 자유롭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기독교 활동이 보장되는 체제가 바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체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임이 틀림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 활동을 금지 시키는 체제는 하나님이 버리신 장막이요, 적그리스도적인 사단의 장막임이 분명한 것이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는 반미 운동에 앞장서고, 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 보안법 폐지에 동참하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많다. 아마도 다는 아니다 하여도 거의가 모두 W.C.C 산하기구인 K. N. C. C 계열이다.

북한의 침략의지와 공산총일 노선에 대하여는 함구(緘口) 하면서도, 인권과 정의가

17) 사 11장, 32장, 35장, 65:17-25

무시되는 독재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행동에는 목숨 바쳐 반대 활동을 펴고 있는 것이 저들의 색깔이다.

이런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교회의 사명은 기독교 복음운동을 전파하는 것이지, 북방의 무신론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예수 사회주의인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개혁이나 체제 변화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1-9차 총회 내용을 기술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W.C.C 지도부가 얼마나 많은 좌익 활동과 공산혁명 활동에 광분해 왔는지를 증명하였다.

감출 수 없는, 하얀 맑고 깨끗한 천위에, 선명한 선홍색의 핏빛과도 같은, 저 증거들을 알려 주어도 만일 한국교회가 회개치 못하고 W.C.C 탈퇴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쭉정이 임을 드러내기 위한 고집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W.C.C 가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기독교 내의 수많은 교파들을 연합하여 한 세계적 단일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학적 교리는 무시하고 궁극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이방종교마저도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18]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악 간에 심판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바로 서서 도마가 고백한 것 같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19] 라고 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신전의식(CORAM DEO)** 속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교회제모습찾기 협의회」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다원주의"와 맞서서 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찾아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18) 출처-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 W.C.C 부산총회개최반대 위원회 / W.C.C 및 W.E.A 관련 자료 모음집.

19) 요 20:28

참 고 자 료

1.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여성 공동기도문

(KNCC의 홈페이지 기도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기도문)

생각 없이 흘어져 살던 우리를 부른 것은 당신입니다.
고속의 기계덩이리에서 내려 맨발로 걸어오라, 짓궂게 부른 것도 당신입니다.
서러운 비수 하나 가슴에 품고, 견디며 삭히며 흘러왔건만
백두대간 몸통을 가르는 죽음의 대운하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당신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유언처럼 간곡히 부르십니다.

오, 하느님, 부처님!
살려 달라 메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당신의 선물,
천지에 어느 것 하나 당신의 모태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만물에 깊이 새겨진 하느님의 흔적,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한 송이 꽃이라 했거늘,
분별심을 내어 저 강물의 숨통을 틀어막는 자 누구입니까?
더 잘 살려는 무조건적 욕망, 더 많이 가지려는 부질없는 바람,
빠르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만이 능사라고 부추기는
거짓진리에 속아 당신을 배반해온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릇 사람은 어머니 뱃속 양수에서 유유히 헤엄치다가 세상에 나옵니다.
사람의 한 생에 온생명의 계통발생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어느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굽이쳐 흐르는 강물 없이는 생명도, 문화도, 역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갸륵한 생명의 순환이 예서 끊어지지 않도록,
오고 올 세대 역시 강물 따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살림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인디언들은 사람 다니는 길에서 바윗돌 하나를 치울 때조차도
그것이 일곱 세대 후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다고 합니다.
발을 타고 부지런히 달리다가도, 문득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이러한 인디언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강물의 리듬에 맞추어 천천히 걷노라니,
편의주의와 실용주의와 이기주의의 삼독(三毒)에 찌든 우리의 자화상이 떠오릅니다.
하늘의 뜻쯤이야 가볍게 능멸하고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양
으스대는
우리의 오만방자함이 가슴을 찌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 걷음 걸음마다 참회의 눈물을 뿌립니다.
이 눈물이 바리데기 생명수 되어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눈물샘인들 파지 못하겠습니까?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胚)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食口)요 생구(生口)인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일은 나를 모시는 일이요, 너를 모시는 일입니다.
녹색별 지구를 살리는 일이요, 만물의 어머니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여성이 일심(一心)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굿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굿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신기루일 뿐,
모두가 골고루 가난해지는 것만이
생명세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선택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제 4대 종단의 종교여성들이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가 한 데 어우러지는
후천개벽의 새 세상을 열기로 결단하오니,
모쪼록 이 믿음의 싹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십시오.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아멘.

구미정(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겸임교수, 서울복음교회 교육목사)

2. "WCC대회 한국교회의 올림픽 아니다"

기독교보 사설(예장고신 기관지), 2009. 9. 26. 4쪽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한국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이며, 통합측 총회장이 유치위원장이 되어 쾌거를 이루었으며, 또한 한국교회의 기도의 힘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의 올림픽이라면서 국가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NCCK에 가입된 교단은 통합, 기장, 감리교, 성공회 구세군, 복음교회, 기하성, 정교회 등 8개 교단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한기총)는 66개 교단과 21개 기관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일찍이 세계교회협의회 가입문제로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졌으며, 기독교 성결교회와 예수교 성결교회가 나누어진 바 있다. 한국 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알아야한다. WCC는 110개국 349개 교단이 가입되어있으며, 6억의 교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7천여 명이 이 회의에 참석한다.

WCC를 지도하는 간부 및 신학자들의 거의 전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다.
■1954년 애반스톤에서 모인 총회에서 '신앙적 기초'라고 기록되어 있는 헌장을 "성경에 기초하여" 교파의 친선을 도모한다는 조문으로 바꾸어 줄 것을 헌의하였으나 부결됐다.
■재림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며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며
■그의 육신적 부활을 믿지 않는다.
■유니테리안 교단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유니테리안 교단이 WCC총회에 제안하기를 "예수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교회"라는 구절을 헌장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WCC운동은 신앙사상의 혼합체운동도 아니며, 소위 한국교회가 말하는 자유주의나 신신학 운동도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WCC 운동은 세계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시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바르트주의와 토착화운동을 수용했으며, 한국의 민중 신학이 WCC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 발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보수교단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WCC의 정체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임을 확대하여 올림픽이니 교회 일치니 하면서 마치 한국교회 전체의 대회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한국의 제2도시 고신의 본산지인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으며, 본 총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하며, 그리고 보수교단들과 신자들이 자유주의 물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3. 전장련의 선언은 종교다원주의 경고하는 예언자적 소리

[크리스챤투데이 특별기고]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김영한 교수 [2009-09-14]

▲김영한 교수(본지 편집고문,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대원장).

머리말

NCCK는 신앙적 정체성을 바로 하라

예장 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전장련)가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신앙 및 신학방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란 제목으로 신앙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에서 2013년 WCC 세계총회 개최지를 한국의 부산 벡스코(Bexco)로 확정한 경사(慶事) 직후 공개적으로 나온, NCCK의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평신도 교회지도자들의 건설적이며 비판적이고 시의적절한 예언자적 소리이다.

불과 125년 전까지 기독교의 불모지였던 한국이 선교 1세기, 그리고 1/4세기 만에 전 세계 기독교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독교 축제와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필자는 환영하고 감격해 마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일을 성사시켜주신 분들(추진위원장 김삼환, 박종화, 조용기 목사 등)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여기서 필자가 논하는 것은 그러한 기독교 대회를 진행하는 NCCK의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110개국에서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정교회 등 349개 교단 5억8000만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 개신교 협의체로 7년마다 나라를 바꿔가며 총회를 열고 있다. 1961년 인도 뉴델리의 3차 총회 이후 아시아에서 52년 만에 열리게 된 부산 제10차 총회는 한국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처음의 경사이자 아시아 개신교의 발전과 역동성을 세계에 과시할 기회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이고 중차대한 기독교적인 축제가 종교혼합 내지 다원주의 정신에 의하여 주도되어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양적이고 화려한 모임의 외관에 치중하는 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합과 화해의 모임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에 발표된 통합측 전장련의 신앙선언은 최근 NCCK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어성 공동기도문], [한국목회자 1000인 시국 선언](2009.6.18) 등이 표현하고 있는 종교혼합 내지 종교다원주의적 내용이 "기독교 정통 신앙에 위배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하여 "기독교의 지도자들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천명하고 있다.

전장련은 "현재 세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신학'에서 21세기 '종교다원주의신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선상에서, NCCK가 간과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를 재천명하여, 왜곡된 '에큐메니칼 정신'을 수정하고, 다가오는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신앙선언의 배경을 천명하고 있다.

전장련은 "우리는 WCC의 창립 정신에 공감하며 교회연합운동에 적극 지지해 왔으나, 최근 WCC와 NCCK의 일부에서 제기된 혼합주의 내지 종교다원주의적 신학편향과 그들의 신앙실천은 성경과 우리의 신앙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들의 신학과 신앙적 입장에 크게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전장련의 신앙선언에 찬성하면서 목사요 신학자로서 연합회가 지적한 문제 글귀를 신앙적·신학적으로 보다 명료히 비판 조명하고자 한다.

I. 전장련이 비판한 [종교여성、공동기도문]과 [1,024인 목회자들 시국 선언문]의 내용

1. 예수와 부처를 혼합하는 종교혼합주의

[4대강 살리기 종교여성 공동기도문]에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이라는 글귀가 있다. 이 기도문은 십자가의 예수와 극락의 부처를 혼융(混融)하여 호칭하고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는 "중생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이라는 글귀는 기독교의 천국(天國)과 불교의 극락(極樂)을 혼합시키고 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가는 곳이나, 극락이란 각성을 한 인간들이 가는 곳으로 교리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러나 극락이란 부처의 길을 따라서 각성한 각 개인이 자력으로 가는 곳이다. 예수와 부처, 두 분은 교리적 가르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합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길이요 진리이나, 불교인들에게는 부처가 길이요 진리이다. 어느 분의 가르침이 객관적으로 참된 진리이며, 어느 분이 참 구세주이며 궁극적 실재인가는 역사의 종말에 가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두 종교의 교리가 서로 전혀 다른데도, 외면적으로 비슷하다고 "예수, 부처"라고 고백하는 것은 종교혼합이다.

공동기도문은 "온 우주만물에 깊이 새겨진 하느님의 흔적,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한 송이 꽃이라 했거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기도문은 하느님과 부처님을 혼융(混融)하여 범신적(汎神的) 존재로 취급한다. "온 우주만물에 깊이 새겨진 하느님의 흔적"이란 말은 범신론의 뉘앙스가 돌어뉘앙스가표현이며, "세계가 한 송이 꽃"이라는 불교의 범신론적 글귀와 병렬(竝列)해 있어서 하느님과 부처님이 동격의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불교인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기도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창조자로서, 우주 만물

과 동일시되는 분이 문은 만물 속에 내재하시면서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한송이 꽃이나 세계와 동일시되는 분이 아니다.

공동기도문은 "만물이 한 배(胚)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食口)요, 생구(生口)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한다. 이 구절은 세계 존재 기원과 생성에 대한 불교적 내지 동양 범신종교적 표현으로서 기독교 성경의 내용과 상치(相馳)된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만물이 한 배(胚)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동양적 범신론적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민속종교의 하느님이 아니고 만물의 어머니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이시다.

공동기도문은 "나무아비타불,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와 소태산 대종사님"을 병렬적으로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에서 더 나아가 종교혼합주의적 기도 내용이다. 이 구절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내 종단이 공동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지고의 신 내지 중보자에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다. 다른 세 종교에서 자기 종교 외의 신이나 중보자를 인정하는지는 모르나, 기독교의 교리에 의하면 타종교의 중보자는 분명히 인정되지 않는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 공동기도문은 종교혼합 내지 종교혼융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기도문은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가 한 데 어우러지는, 후천개벽의 새 세상을 열기로 결단하오니"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후천개벽은 미륵불(彌勒佛)의 종말사상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인자(人子)의 종말 사상과 다르다. 후천개벽 사상은 불교의 미륵불이 이루는 신천신지이나, 기독교의 종말은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내용이다. 기독교 종말론은 후천개벽이 아니라 첫 하늘과 첫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주권적인 종말을 천명하고 있다.

2. 예배와 굿판을 혼동

공동기도문은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굿판 대신… 살림의 굿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무당(巫堂) 굿판의 신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굿과 예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굿은 귀신의 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이고, 예배는 거룩한 영의 가름부음을 받은 성직자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이다. 굿판에 임하는 것은 잡귀신이나, 예배에 임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굿판은 돼지 머리와 갖가지 음식을 갖다 놓고, 신령이 와서 먹고 진노를 멈추고 재앙을 거두라고 귀신을 달래는 종교의식이다. 그러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하여 드리는 헌신이요, 회개요, 구속에 대한 감사요, 축제이다.

굿판에는 회심, 그리고 새 삶을 살려는 결단이 없고 제물만 많이 드려 정성이 외견상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예배에는 먼저 회개와 헌신이 있어야 하고 마음의 정성이 내면적으로 있어야 한다. 제물은 이차적이다. 마음의 회심과 헌신과 결단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믿음이 중요하며, 결정적이다.

굿판을 벌이는 자에게는 윤리적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요구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굿판을 벌이는 자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배에는 윤리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요구가 주어진다.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자는 옛날과 다른 사람으로 성화되어 간다. 굿판은 종교적으로 반복적으로 옛 삶과 구습을 반복하는 자가 신령을 두려워하여 드리지만,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새 삶을 영위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종교의식이다.

3. 자살자의 피를 예수의 피와 동일시

2009년 6월 18일 개신교 목사 1,024명의 이름으로 행한 시국선언은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 라고 하고 있다. "부엉이 바위에 묻어 있는 핏자국"이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본다"는 구절은 노무현의 죽음이 예수 죽음처럼 신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살을 미화시키는 구절이며, 동시에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세속화시키는 모독적인 구절이다.

투신자살한 당사자는 전직 대통령이다. 그는 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가족과 함께 검찰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던 형사 피의자였다. 당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논란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가 자살한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의 핏자국에서 예수의 거룩한 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노무현은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여 궁지에 몰린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서(遺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이 희생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가족들과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죽음은 전직 대통령에 걸맞는 죽음이라고 볼 수 없고 국제적으로도 명예스럽지 못했고 떳떳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안중근 의사(義士)의 죽음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안중근은 비록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저격했으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등박문(伊藤博文) 때문에 나라를 잃은 2천만 한국인을 위하여 의거(義擧)를 하였다. 그는 저격(狙擊)후 정정당당하게 체포되고 동양평화를 위하여 의거하였고, 이 평화를 저해하는 이등박문을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응징하였다고 자신의 저격행동을 변호하였다. 그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숭고하게 처형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는 일본인들 사이에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예수는 전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해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안중근의 죽음조차도 그분의 죽음에 비할 수 없다. 예수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의 죽음에서 유비(類比)를 찾을 수 없는 유일회적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그분은 죄없는 자로서 죄인인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기독교 목사들이 할 수 있는가? 장로인 평신도 지도자들(전장련)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하여 목사와 신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침묵만 할 수 있는가?

II. 장로님들의 우려는 예언자적이다

NCCK신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 논란은 장로들(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장, "하나님의 법과 '부엉이 바위'에 묻은 핏자국," 2009년 7월 13일, 크리스천투데이)만 아니라 목회자및 신학자들도 동참하여야 한다.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노력하여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

1. 진정한 연합이란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이란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할 바람직한 목표이다. 그러나 보수(保守)되고 지켜야 할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연합과 하나됨을 밀고나갈 수는 없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참된 의미이다. 에큐메니칼 정신은 다른 기독교 교파와 화해하고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교회 통합을 이룩하자는 정신이다. 그런데 이 정신이 일부 급진주의자들에 의하여 왜곡되고 있다. NCCK 가운데 소수 급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에큐메니칼 정신을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무속종교 같은 다른 종교들과 혼합하는 정신으로 변질 왜곡하고 있다.

오늘날 종교사(宗敎史)학자들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각 종교는 경배하는 신들이 각기 다른데 "초월적 실재"(the transcendent reality)라는 이름으로 각 종교를 공통적으로 묶는 것은 종교 혼합이며 종교의 추상화라는 것이다. 각 종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공통적인 경건과 공동선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에큐메니칼의 정신이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혼합이 아니라 기독교 교파들이 공통분모인 하나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안에서 자엽적인 교리의 차이(교회의 직제, 성찬의 방식, 전도 방식, 인종, 문화의 차이 등)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성경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서로 다른 종교들이 연합하는 종교혼합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독교 교회의 연합과 일치운동이다.

2. 진정한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지 인간들 사이의 하나는 아니다

예수님은 인류 대속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신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요 17:21) .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대로 오늘날이야말로 분열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요청되고 필요한 시대이다. 그러나 인간의 취향대로 원칙이나 기준 없이 혼합적으로 하나되어서는 안 된다.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세계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것은 치하하며 동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연합과 일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바 같이 "우리 안에서"(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고등종교와의 이해와 협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타종교와의 교류와 협력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주권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와 인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종교적 인간들만의 모임이다. 이러한 연합 모임에 있어서 신앙의 정체성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것은 종교혼합이 되어 버린다.

3. 종교 공존은 종교 혼합일 수 없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웃의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고 종교들 간에 평화롭게 지내고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바람직하다. 종교간의 공존은 가능하며, 지켜져야 한다. 특히 동양종교의 전통(불교, 도교, 유교, 원불교 등)을 지녀온 우리 한국같은 다원종교적 사회에서는 종교 공존은 중요하다. 서로간의 신앙과 교리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종교는 양심의 영역이므로 신앙을 강제해서는 않된다. 종교분쟁은 없이야 하고 있어서도 않된다. 타종교에서 열성과 지성을 배울 수 있다. 타종교와 협력하여 북한의 굶주린 동포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수재민을 도우고, 사회의 빈민층과 노숙자들을 돕고 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급진주의자들처럼 기독교 하나님이 타종교의 신과 같다는 식의 종교 혼합은 절대 불가한 일이다 그리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의 길로 가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대속을 부정하는 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WCC도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필자는 [4대강 살리기 공동여성기도문]의 종교혼합주의적인 해괴한 글귀는 NCCK의 본부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소수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의견이라고 본다. 그런데 NCCK의 홈페이지 기도문 란(欄)에 올려진 [4대강 살리기 종교여성공동기도문]에 대하여 자유게시판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단시비를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교혼합의 기도문이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근 1년 2개월 동안 버젓이 게시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자는 취지의 운동이지 교회와 절이 하나되자는 것은 아니다.

결론

신앙에 회색지대란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 결단해야 한다

NCCK는 연합이라는 명목 아래 더 이상의 무의미한 종교혼합이나 종교다원주의의 위험한 줄타기를 중단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한다.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란 없다. 오늘날 WCC 내에 만연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순수 복음으로 돌아올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앞으로 2013년에 WCC 세계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할 때에도 NCCK는 오늘날 WCC 안에 있는 일부 급진적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종교혼합이나 종교다원주의 신학과 분명한 결별의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럴 때 근 95%이상이 복음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지도자들(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진정한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와 바알 선지 사이의 신앙적 결단(왕상 18:21)이 요청된다. 여호와 참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의 하느님을 섬기든지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정치에 개입과 간섭이 필요한 것인가?

대통령을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한국의 목사들

성경의 인물 중에 정치와 그 해당자를 할난하게 비판했던 세례 요한은 처참하게 목이 잘리는 신세가 되었다. 과연 목회자는 정치에 개입하며 간섭하는 것이 온당한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역사의식을 배제하거나 현실을 도피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현 정부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복음적인지 아니면 목회현장에서 필수적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후 6월 18일 개신교 목사 1,024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한 바가 있다. 시국선언의 내용 중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라는 문구가 과연 성경적이며 복음적인지 묻고 싶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한 동안 한반도 사끄러웠는데 그 후 목사들이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아부성 발언을 한 바가 있다. 어쩌면 시국



선언 참가자 중에도 있을 것이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다.

북한 김정일과 당국관계자들에게 아부한 정신 빠진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선교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차원인지 몰라도 서로 마주 쳐도 인사를 하지 않을 정도 모른 척하는 목사들이 명설교가니 영성으로 한국교계 중요인물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과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질문하고 싶다. 지금은 4대 강 살리기 반대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진짜 할 일이 없는지, 목회를 중단하고 이 일에 뛰어들던가? 아니면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살리기 원한다면 지금 하는 일을 그만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투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현재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이나 교육이나 기타 정부가 하는 일에 역성을 들면서 꼬집는 설교를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시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이 이루어가며 생명의 근원과 뿌리를 뻗어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 속에 목회를 해도 될까 말까한데.....

목사는 목회에 전념을 하고 위정자들은 정치와 경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잘잘못을 따지면서 넘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내가 앉았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라. 부정과 부패를 만연하게 만든 장본인들을 지적하다 보면 오히려 지적하는 이들이 더 위선적이며 왜곡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시국선언을 한 목회자 명단을 공개와 아울러 김영훈 장로께서 하나님의 법과 "부엉이 바위"에 묻은 핏자국이란 제목으로 쓴 칼럼을 지상 공개하고자 한다. 정치적인 한계와 위기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한다면 교회정치적인 부정부패가 그대로 한국정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과 '부엉이 바위'에 묻은 핏자국



김영훈 장로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숭실대학교 법학교수
신용산 교회

지난해 6월 18일 개산교 목사 1,024명의 이름으로 행한 시국선언의 내용 중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집단적 시국선언 행위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으나 목회자의 사회구원론적, 예언자적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경우 목회자의 시국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과 국가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과 국가법을 상고하며 위 시국선언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마 1:21).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입니다(갈 3:13).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전제조건이며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은 자살한 인간의 죽음의 흔적입니다.

누구의 죽음이든, 어떤 모습의 죽음이든 일반적으로 인간의 죽음은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형태와 죽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엉이 바위에 묻어 있는 핏자국은 투신자살 과정에서 흘린 인간의 죽음의 흔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3. 투신자살한 당사자의 신분은 피고인이 아니고 형사피의자였습니다.

투신자살한 당사자는 전직 대통령이고, 형사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가족과 함께 검찰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던 형사피의자였습니다. 검찰에 의해 아직 기소가 되지 아니한 피의자이므로 피고인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의 추정을 받고 있었습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국가의 검찰은 헌법상 법 앞의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1항)에 의해 형사피의자에 해당되는 국민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의 범죄사실을 수사해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당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논란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가 자살한 것입니다.

4. 어떻게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예수의 죽음을 본다는 것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치며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입니다(벧전 5:2-4).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의 삶과 사상에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신도는 물론이고 비 기독교인들도 하지 않는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기독교 목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5.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목회자 1,024인 시국선언'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살자의 죽음과 대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미신적 내용의 시국선언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위배되는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시국선언 당사자들은 현저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스스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성서적 내용의 시국선언을 끝까지 고수하시려면 미안하지만 목사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1024인 선언 참가자명단

강건수 강관석 강광하 강기원 강민용 강서
구 강선기 강성재 강수은 강신우 강원구 강원
돈 강원용 강유껌 강은숙 강의준 강진국 강천
규 강춘근 계성남 고경수 고남수 고덕천 고명
호 고상균 고은영 고종혁 고형진 고혜신 공기
현 곽송희 곽은득 곽종섭 구교형 구미영 구본
선 구자은 구탁서 권길성 권동용 권미주 권상
혁 권영한 권영종 권오성 권오준 권점용 권춘
택 권혁필 금병진 금영균 김 철 김강호 김거
성 김경남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아 김경
일 김경제 김경태 김광수 김광준 김권섭 김규
북 김 기 김기대 김기석 김기섭 김기수 김기
수 김남경 김남도 김대명 김대목 김대선 김대
술 김대영 김대욱 김대철 김대환 김덕용 김도
진 김동국 김동수 김동한 김두홍 김류한 김만
철 김명환 김명환 김미리 김민경 김민해 김병
군 김병내 김병순 김보현 김봉구 김삼진 김상
근 김상도 김상록 김상욱 김상은 김상작 김상
진 김상현 김상훈 김선규 김선민 김선우 김선
희 김성기 김성룡 김성복 김성수 김성수 김성
용 김성윤 김성준 김성진 김성철 김성현 김성
훈 김성희 김수남 김수영 김수환 김승영 김승
환 김시웅 김신애 김애영 김연심 김영곤 김영
관 김영광 김영균 김명특 김영범 김영석 김영
선 김영섭 김영윤 김영인 김영일 김영일 김영
재 김영주 김영주 김영철 김영태 김영화 김욱
성 김완수 김용기 김용성 김용수 김용식 김용
주 김웅한 김웅태 김원진 김윤기 김윤주 김은
경 김은규 김은수 김은영 김은철 김은환 김인
열 김인태 김일룡 김일호 김장환 김재검 김재
웅 김재영 김재진 김재천 김정분 김정운 김정
배 김정진 김정환 김종구 김종길 김종맹 김종
하 김종수 김종오 김종욱 김종일 김종일 김종
목 김종화 김주연 김주천 김주홍 김증배 김지
규 김지태 김진수 김진열 김진우 김진호 김창
재 김창기 김창락 김창현 김천웅 김철동 김철
현 김철호 김충구 김치범 김태연 김태욱 김태
종 김태종 김태현 김태환 김택상 김한승 김현
기 김현수 김현의 김현정 김현종 김현철 김현
호 김형곤 김형가 김형아 김혜일 김혜정 김호
관 김호진 김홍선 김홍술 김홍일 김홍한 김홍

한 김효근 김효정 김효준 김흥식 김희용 김희
웅 김희철 김희현 나성권 나신환 나학집 남궁
희수 남기동 남기인 남영민 남재영 남재우 노
경신 노승찬 노시진 노영우 노용환 노일경 노
재학 노준호 노창식 노해민 노환상 류광선 류
상선 류순권 류연창 류정현 류재성 류재혁 류
태길 류태선 류한찬 명성인 문광웅 문대골 문
성주 문양로 문영길 문영주 문정영 문홍근 민
정홍 민숙희 민정식 민홍기 박경범 박경서 박
경양 박경조 박경철 박광선 박광진 박규용 박
기백 박남수 박노택 박덕신 박동렬 박동신 박
동일 박두범 박민규 박명준 박명환 박문수 박
민규 박민수 박민영 박봉규 박상용 박상웅 박
상필 박상현 박상환 박상희 박석종 박성광 박
성규 박성민 박성순 박성용 박성호 박수진 박
순웅 박순종 박순진 박순찬 박순호 박승규 박
승렬 박승복 박승종 박승태 박시몬 박영락 박
영모 박영생 박영식 박영주 박용갑 박용철 박
윤수 박은경 박일남 박장규 박재상 박재신 박
재표 박재현 박정민 박정인 박정일 박종렬 박
종명 박종선 박종웅 박종하 박종호 박종훈 박
종현 박주열 박주열 박주홍 박준복 박준석 박
지태 박진석 박진수 박진영 박찬일 박찬희 박
창농 박창빈 박창재 박천응 박 철 박청용 박
춘배 박충현 박태식 박평일 박한서 박형규 박
형대 박홍열 박화원 박효섭 박후임 박홍순 박
희영 박희진 반선용 방영식 방인성 방현섭 배
광환 배안용 배영도 배영미 배영호 배태진 배
현묵 배현석 배현주 백광모 백남운 백명기 백
승태 백승혁 백영기 백영민 백용석 백용현 백
은경 백은광 백주안 박창욱 백현종 변경수 변
영권 변영만 서경가 서관훈 서덕석 서명석 서
용운 서일웅 서재선 서재일 서정훈 서진한 서
충성 서태식 석 일 성귀영 성낙현 성명옥 성
모 성범용 성석환 성요한 성정희 성해용 소복
석 손경락 손근석 손무홍 손병의 손영경 손은
정 손은하 손인선 손주완 송경숙 송경인 송기
출 송동광 송병구 송성진 송 열 송영섭 송원
준 송인현 송현성 송현국 신건현 신경희 신광
섭 신광수 신금철 신동환 신민주 신범순 신복
현 신삼석 신승민 신승원 신영철 신점균 신정

숙 신진욱 신희남 심은정 심자득 심해련 안기
성 안동중 안명준 안미현 안민희 안성영 안성
영 안수경 안승영 안재근 안재웅 안재학 안재
홍 안종수 안중덕 안지성 안철혁 안치석 안하
원 양만호 양미강 양미화 양성훈 양재성 양진
규 양화자 양희만 엄기문 엄상현 염순기 여상
범 여재훈 여주영 염희선 오규석 오규섭 오문
범 오미숙 오범석 오봉근 오상열 오상운 오석
회 오세옥 오세혁 오신택 오영미 오영택 오용
균 오용식 오은탁 오정근 오종균 오주연 오진
희 오태일 오현석 오현일 우규성 우대명 우상
대 우진성 우철영 우현기 원기준 원성희 원순
철 원용철 원창연 원형은 유경동 유경재 유경
종 유근숙 유명선 유미란 유병철 유상신 유성
일 유승근 유영모 유요열 유원규 유장림 유재
근 유재무 유재신 유찬호 유한찬 윤광호 윤규
택 윤기수 윤길수 윤문자 윤병민 윤병학 윤세
나 윤승현 윤여군 윤영덕 윤영호 윤인중 윤일
규 윤정현 윤찬우 윤형노 윤홍석 이갑수 이강
실 이건중 이경호 이관용 이광근 이광빈 이광
열 이광악 이광일 이광진 이광호 이규성 이근
복 이근태 이근형 이기영 이길수 이대근 이대
성 이대성 이대성 이대수 이덕세 이도희 이동
규 이동군 이명국 이명남 이명섭 이명호 이미
홍 이만규 이민우 이병운 이병창 이병훈 이상
대 이상민 이상봉 이상순 이상은 이상은 이상
점 이상중 이상잔 이상진 이상호 이선우 이선
형 이성근 이성도 이성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
준 이성혜 이성환 이성희 이세우 이수상 이수
윤 이수호 이순태 이승용 이승정 이승주 이승
학 이승현 이연석 이 영 이영기 이영미 이영
신 이영우 이영재 이요한 이요한 이우주 이우
현 이원돈 이원주 이원진 이원철 이원희 이윤
상 이은선 이은우 이은종 이은혜 이인구 이인
수 이인철 이장환 이재곤 이재광 이재균 이재
복 이재산 이재정 이재천 이재철 이재호 이정
구 이정일 이정호 이정훈 이정훈 이정훈 이종
명 이종웅 이종철 이종훈 이주현 이준모 이준
섭 이준원 이준행 이 진 이진권 이진식 이진
영 이진원 이진형 이진호 이창덕 이천수 이천
우 이철규 이철용 이철우 이철진 이철호 이청
산 이춘섭 이춘수 이치만 이태영 이태용 이택
규 이필완 이한오 이해길 이해동 이해학 이
헌 이현석 이현성 이현웅 이현종 이현주 이현
준 이형호 이혜진 이호신 이호일 이훈삼 이흥

만 이희중 인금란 인영남 임갑순 임광영 임광
빈 임규일 임대식 임동진 임명규 임봉기 임상
일 임성규 임성호 임세원 임순배 임숭철 임연
호 임영인 임웅수 임응수 임인수 임장혁 임정
환 임종태 임종호 임태환 임 혁 임홍연 임흥
기 임희영 장관철 장 균 장금항 장기용 장덕
환 장동식 장명기 장병기 장 빈 장연승 장용
근 장용기 장원가 장익성 장인용 장종찬 장창
원 장창희 장현권 전광남 전규자 전민호 전성
표 전영훈 전재명 전재식 전재식 전진택 전혁
진 전혜경 정경호 정금교 정길섭 정 민 정 민
정병진 정보영 정상복 정상시 정석윤 정성옥
정순란 정승영 정영문 정요섭 정용섭 정용호
정우찬 정윤재 정윤혁 정은일 정의석 정의영
정일용 정재동 정정섭 정종득 정종영 정종훈
정준영 정지강 정지석 정진우 정진환 정차기
정충일 정태효 정한식 정해덕 정해동 정해선
정해준 정현순 정현용 조건준 조광호 조규성
조규천 조규춘 조도현 조동승 조만식 조명숙
조부활 조선우 조수정 조수현 조순형 조승환
조연정 조영식 조영철 조용희 조윤희 조은화
조이제 조인영 조정기 조정현 조필구 조하무
조해면 조헌정 조홍식 조희영 주낙현 주명국
주일중 지경섭 지관해 지동흡 지성희 진광수
진성기 차명호 차수연 차준섭 차홍도 채일손
채현기 채혜원 첩원숙 천재욱 최갈성 최광섭
최규완 최덕기 최만석 최명수 최문호 최범순
최병학 최부욱 최상석 최상호 최성관 최성묵
최수재 최순희 최연범 최연석 최영묵 최용철
최원재 최윤태 최은식 최의팔 최인규 최인석
최자웅 최재홍 최재훈 최정기 최종구 최종선
최준기 최찬영 최철호 최치훈 최현국 최현남
최현성 최형묵 최호병 최효성 추교화 추이열
탁현균 하금식 하동오 하양옥 하태용 하현정
한강희 한경호 한국염 한규준 한규채 한기양
한남호 한명재 한상열 한석문 한선영 한성국
한성수 한승수 한왕섭 한인철 한재선 한재홍
한제훈 한종현 한종호 한필주 허만형 허석헌 허재규
함윤숙 함인숙 함필주 허만형 허석헌 허재규
허종현 현구원 현선도 현순호 현제식 홍기원
홍대영 홍병현 홍보연 홍성국 홍성윤 홍성표
홍승표 홍승현 홍영희 홍인식 홍정수 홍주민
홍주현 황병환 황상오 황성규 황세진 황인근
황준영 황춘득 황필규 황현수

〈이상 1024명〉

"WCC는 잘못된 신학을 전하고 있다"

한기총 WCC대책위, WCC 문제점 알리는데 총력 기울일 것

오는 2013년 WCC 부산총회 개최를 앞두고 기독교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WCC대책위원회(위원장 홍재철목사, 이하 WCC대책위)는 지난달 25일 서울 연지동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CC 부산총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기총과 개신교단협의회, 보수교단협의회, 개혁교단협의회, 장로교 연합 협의회의 연합체인 WCC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WCC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일에 대해 우려하는 10가지 이유를 말하며 WCC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3면〉

WCC대책위는 WCC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로 △종교다원주의 △종교대화주의 △종교혼합주의 △사회구원지상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로마카톨릭주의 △가시적 교회일치주의 △신앙고백 형식주의 △성경불신주의 등을 들었다.

이어 "NCCK에 가입된 교단들은 위 10가지에 대해 구구한 변명과 설명을 나열하기에만 급급하다"며 "한기총이 중심이 돼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전하는 WCC를 반대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959년 WCC 가입 문제로 예장 통합과 합동측이, 1960년대 기성과 예성이 분열된 예를 들며 "복음주의로 하나 되는 부흥의 봄이 오고 있는 시점에서 WCC라는 50년 전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리고 "WCC측에서 보수 교단의 인사들 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WCC를 찬성하는 듯 한 왜곡 보도하는 사례를 일삼고 있다"며 "이것은 보수 교단을 교란시키기 위한 시도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보수라고 하지만 WCC를 찬성하는 발언을 하는 목회자들의 신학관을 검증해 발표하고 WCC의 문제점을 알리는 소책자를 만들어 1,200만 성도들에게 배포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송상원기자〉

교회연합신보
2011. 3. 6 인쇄
14면

코란 화형식으로 아프간 유혈사태 부른 美목사

"앞으로도 反이슬람 시위 계속할 것"

미국인 목사의 '코란(이슬람 경전) 화형식'이 촉발한 아프가니스탄 무슬림의 항의시위로 3일까지 20여명이 숨지고 8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사태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 모든 사태를 촉발한 테리 존스(59·사진) 목사는 미국 미주리주 출신으로 1980년대 독일에 정착해 퀠른 지역에서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당시 그는 민감한 사회문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교인들에게 '세뇌'시키는 재능을 바탕으로 신도 수를 급속하게 키워갔다. 처음엔 동성애자를 공격하던 그의 설교는 점차 이슬람을 향한 반감을 표출하다가 내용이 급격하게 과격해져 일부 교인들이 예배 참석을 꺼릴 지경이 됐다. 게다가 그는 교인들이 자신에게 반대하면 하나님



에 대한 범죄라고 몰아갔다. 그가 재정적으로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2009년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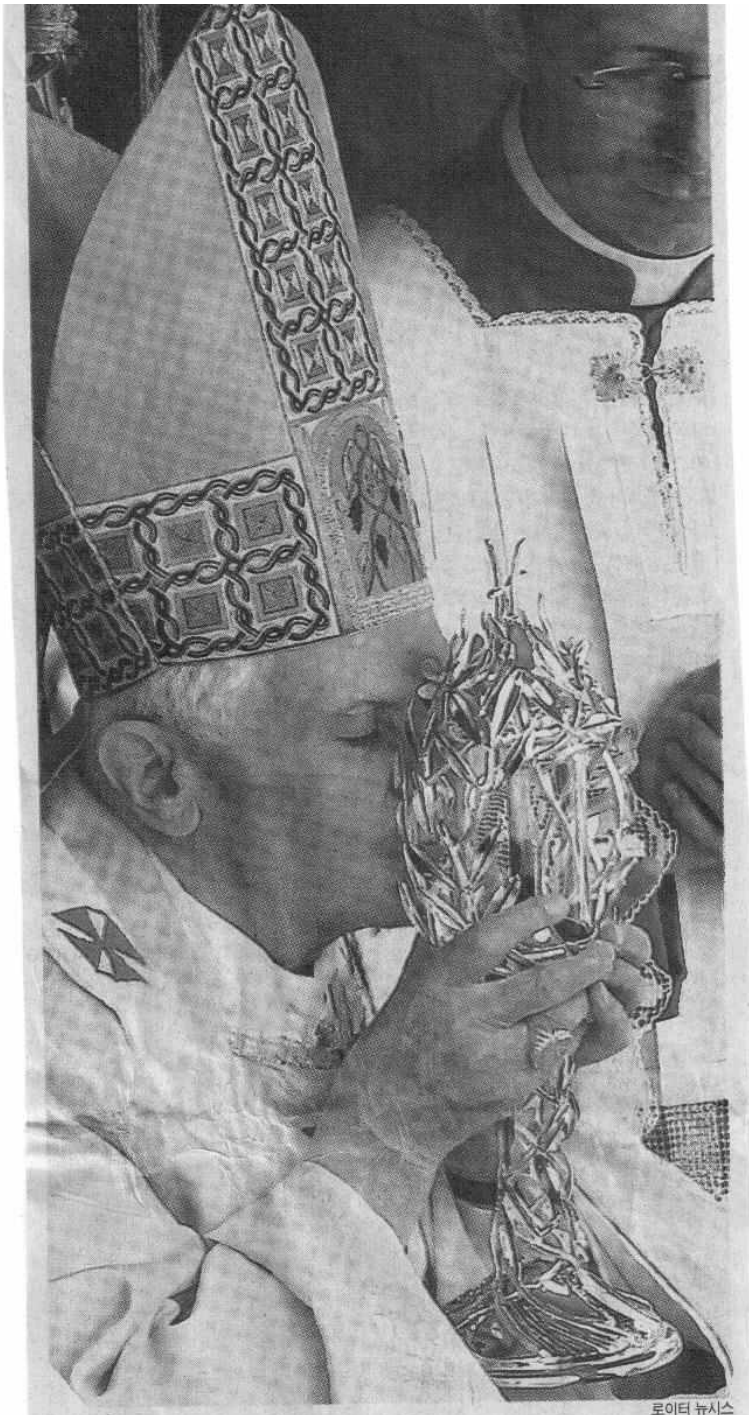
그는 이후 미국 플로리다주의 게인스빌로 이주해 계속 목사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9·11 기념일에 맞춰 '코란 소각'을 추진하는 등 기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현재 그의 교회 신도 수는 5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는 지난 3월 20일 코란에 대한 모의재판이 열어 코란의 5가지 '반인륜범죄' 항목을 열거한 뒤 '소각' 판결을 내렸다. 코란이 타는 것을 보며 존스는 "잘 타는군. 마시멜로 구워도 되겠군"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교회측이 모든 과정을 동영상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존스 목사는 2일 아프간 유혈사태 소식이 전해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이 즉각 보복해야 한다. 이슬람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며 "22일 미시간주의 미국 최대 이슬람 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슬람 국가 중 유독 아프간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10여년간의 전쟁과 미군 주둔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극단적인 반미 세력이 존재하는 데다 미군·유엔시설 등 직접적인 '타깃'이 될 대상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lmhcool@chosun.com



로이터 뉴시스



前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선종 6년만에 福者되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1일 바티칸 성(聖)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요한 바오로 2세<왼쪽 작은사진> 시복(諡福·복자로 추대함) 미사에서 요한 바오로 2세 생전에 채혈한 혈액이 든 성유물함(聖遺物函)에 입을 맞추고 있다. 천주교에서 복자(福者·Blessed)는 신자들의 공경 대상으로 공식 선포된 사람이며,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 6년 만에 시복된 것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사례들 중 하나로 꼽힌다. 복자가 된 뒤 시성(諡聖)과정을 거치면 성인(聖人·Saint)이 되며, 한국 천주교회에도 김대건 신부 등 103위(位)의 성인이 있다. **관련기사 A20면**

이교도 – 우상숭배 – 천주교

◈ 300년 십자가 성호 긋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 320년 촛불 사용
◈ 375년 천사와 죽은 성도 숭배, 초상사용.
◈ 378년 로마 감독(교황)이 이교도 최고 승원장 겸함.
◈ 394년 매일미사.
◈ 431년 에베소회의에서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높여 부름(Mother of God).
◈ 500년 사제들의 의상(복장) 착의.
◈ 526년 종부(終傅 Extreme Unction) 성사.
◈ 590년 교황칭호를 가짐.
◈ 593년 연옥교리(그레고리 Ⅰ세)
◈ 600년 라틴어 사용(그레고리 Ⅰ세) 마리아, 죽은 성자, 천사들에게 기도.
◈ 709년 교황의발에 입 맞추기.
◈ 750년 교황의 세속권력 인정.
◈ 788년 십자가, 초상화, 성자상, 유물숭배.
◈ 800년 마리아에게 기도.
◈ 850년 성수(소금물) 공인.
◈ 890년 성요셉 숭배.
◈ 927년 추기경회 설립
◈ 965년 종으로 성체(Bell).
◈ 11세기 미사출석의무, 미사성찬거행.
◈ 1079년 신부의 독신 규정(그레고리 Ⅶ세).
◈ 1090년 로자리(염주, 묵주).
◈ 1091년 면죄부 개발.
◈ 1184년 종교재판-뵈로나 회의.
◈ 1190년 면죄부 판매개시.
◈ 1215년 고해성사, 화체설(인노센트 Ⅲ세).
◈ 1220년 성체(떡) 숭배(호노리우스 Ⅲ세).
◈ 1229년 성경구독금지(바렌찌아회의).
◈ 1251년 신부들의 어깨에 걸치는 옷.
◈ 1414년 성찬 시 잔을 나누는 것 금지.
◈ 1439년 연옥설 확정(프로렌스회의). 7성례교리 확정
(7성례 / 영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혼인, 신품)
◈ 1508년 성모찬미기도제정(식스투스 Ⅴ세).
◈ 1540년 예수회 탄생(바오로 3세의 교서에 의해)
◈ 1545년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트렌트 회의”,
◈ 1546년 “트렌트 회의”-외경도 인정, 정경으로 공인)
◈ 1568년 성모송 완성
◈ 1854년 마리아 무죄 잉태설(피우스 Ⅸ세)
◈ 1870년 교황 무오설(바티칸 회의)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정함
◈ 1917년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정함.
◈ 1931년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
◈ 1950년 마리아 부활 승천설, 마리아 교회의 어머니(바오로 Ⅵ세).
◈ 1962년 마리아 종신 처녀설